

with KRTA

# 방사협보

VOL. 406

JUNE  
2026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강동성심병원  
신재욱 방사선사

한강시민공원,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시민 구한 방사선사

강릉아산병원  
김세훈 방사선사

필사의 CPR, 심정지  
70대 시민 구한 방사선사

생명을 향한 용기, 환자를 위한 헌신  
현장에서 빛난 방사선사의 따뜻한 사명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모 집회서 「의료  
기사법」 개정안 조속 처리 강력 촉구

15

강릉아산병원 김세훈 방사선사,  
교통사고 심정지 환자 구해 눈길

59

강동성심병원 신재욱 방사선사,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환자 생명 지켜

62



대한방사선사협회

with KRTA

# 방사협보

JUNE 2026 VOL.406



## 표지 이야기

생명을 향한 용기, 환자를 위한 헌신  
강동성심병원 신재욱 방사선사,  
강릉아산병원 김세훈 방사선사

발행일 2026년 6월 25일(통권 406호)  
 발행인 박중창(대한방사선사협회장)  
 편집위원장 박성모(건국대학교병원)  
 미디어혁신이사 박호성(아주대학교병원)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화 02-576-6524  
 팩스 02-576-6526  
 이메일 krt@krt.or.kr  
 홈페이지 www.krt.or.kr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편집/디자인 상상크리에이티브  
 인쇄 동신CNP

## Contents

###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 09 발로 뛰는 협회
- 15 중앙회 소식
- 25 시도회 소식
- 49 전문학회 소식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홍보동영상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인스타그램

###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59 ISSUE  
강릉아산병원 김세훈 방사선사,  
교통사고 심정지 환자 구해 눈길
- 62 ISSUE  
강동성심병원 신재욱 방사선사,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환자 생명 지켜
- 64 ISSUE  
의료 영상의 가치를 예술로 시각화하다
- 68 ESSAY  
위험을 통제하고 신뢰를 만든다
- 72 REVIEW  
일상 속의 방사선 과학
- 74 REVIEW  
의료 영상 기술의 정경,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그리는 미래 의료의 청사진
- 78 REVIEW  
아랍에미리트의 의료, 방사선사 교육으로 의료  
경쟁력 높인다



## We are RT's

- 88 202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도관리 측정  
사업
- 89 무먼허 방사선 검사 퇴치운동!
- 90 제4회 방사선사의 날
- 91 퀴즈 이벤트  
독자퀴즈

방사협보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방사협보는 협회 홈페이지(www.krt.or.kr)와 웹진(webzine.krt.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사협보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23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및 제11회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 공고

제23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및 제11회 방사선의학물리사 자격시험을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 가. 시험안내

### 1 일정 및 장소

회차	지역	시험일	시험장소
1회	수도권(성남)	8월 23일(일)	신구대학교 동관
	중부권(대전)		건양대 대전 메디컬캠퍼스 L보건학관
	영남권(대구)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호남권(광주)		광주보건대학교 여호수아관
2회	수도권(성남)	11월 29일(일)	신구대학교 동관
	중부권(대전)		건양대 대전 메디컬캠퍼스 L보건학관
	영남권(대구)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호남권(광주)		광주보건대학교 여호수아관

### 2 시험방식

-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시험 (CBT)

### 3 시험시간

- 90분 (문항수: 90문항)

### 4 세부일정

회차	지역	시험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수험번호 공지	이의신청 기간	합격자 발표	
1회	수도권	8월 23일(일)	7월 1일(수)	8월 10일(월)	8월 24일(월)	8월 31일(월)	
	중부권		~				
	영남권		7월 31일(금)				8월 26일(수)
	호남권						
2회	수도권	11월 29일(일)	10월 1일(목)	11월 9일(월)	11월 30일(월)	12월 7일(월)	
	중부권		~				
	영남권		10월 31일(토)				12월 2일(수)
	호남권						

## 나. 응시자격

분야	
(1)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10) 투시 전문방사선사
(2)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11)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3) 유방 전문방사선사	(12) 치료 전문방사선사
(4)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13)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5)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14)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6)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15) 방사선 의학물리사
(7)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16) 방사선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8)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17) 방사선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9)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 각 해당분야에 응시인원 5인 이하일 경우, 해당분야 시험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회차(2026.08.) 시험만 해당. 2회차(2026.11.) 시험은 인원 제한없음.)

## 다. 시험시간

시간	내용	비고
1교시(10:00~11:30)	권역별 온라인 시험장 운영으로 회차별 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시간표	1) 문항 수: 90문항 90분 시험 2) 시험방식: 온라인 (CBT)
2교시(12:30~14:00)	및 세부사항 공지 회차당 1분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3교시(15:00~16:30)	(다중분야 응시불가)	

\* 응시인원에 따라 교시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방법 :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s://krta.or.kr>)에서 작성 후 접수
- ※ 응시원서에 첨부할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 협회 웹사이트 [My page] → [개인정보조회수정] → [일반정보 수정하기] → [회원사진]
- 사진 파일은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또는 가로 140픽셀, 세로 180픽셀
- 사진 용량은 100KB까지만 허용합니다.
- JPG 파일형태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 응시수수료 : 80,000원
- 납부방법 :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s://krta.or.kr>)에서 결제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접수기간 내에 응시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가 취소됩니다.

## 3 취소 및 환불

- 취소 및 환불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문의(민원)마당에 취소 및 환불 신청(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취소/환불 불가)

## 4 응시원서 접수 확인

- 접수 여부 확인은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s://kr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수험번호 공지 및 수험표 출력

-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 공지일 이후 수험표 개별 출력하여 지참

## 6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진행은 전산화하여 운영되므로 진행에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마감 전에 등록 바랍니다.
- 과년도(2025년까지) 회비 미납자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납된 회비는 사전에 납부한 후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응시자격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로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인 자
- 2) 면허 취득일 기준 5년 미만인 경우, 전문방사선사 양성을 목적으로 협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전문화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3) 방사선 관련 외국의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 바.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1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2 합격자 발표

- 합격자 확인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s://krta.or.kr>)에서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 3 기타

- 응시자 시험 관련 유의사항은 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s://krta.or.kr>) - 문의(민원)마당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제출 기간 이후 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 사. 자격증 교부

### 1 자격증 교부

- 합격 후 홈페이지(개인정보조회수정)에서 60일 이내 자격증 교부 가능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실물 자격증은 제작 완료 후 90일 내에 원서 접수 시 입력한 수령 주소로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발로 뛰는 협회	09
중앙회 소식	15
시·도회 소식	25
전문학회 소식	49

## 2026 March



3월 10일

- 제3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3월 11일

- 제25대·제26대 업무 인수인계

3월 12일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 2026 상반기 리더스 간담회

3월 14일

- 법제부 & 김종범 변호사 미팅
- 제2차 상임이사회의
- 제2차 임시이사회의
- 제3차 인사위원회의

3월 18일

- 재무부 업무활동
- KRDMS 한국의료초음파연수원 미팅

3월 4일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3월 6일

- 을지대학교 방사선학과 워크숍

3월 7일

- 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광주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부산가톨릭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인천분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제23차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3월 19일

- 지역 중소병의원 보건의로 노동자 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

3월 21일

- 2026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60차 국제 학술대회

3월 22일

- 신구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보건복지부 간담회 준비 업무활동

3월 23일

- 제3차 상임이사회의
- 변호사 김종범 법률사무소 계약

3월 26일

- 제4차 인사위원회의
- 대한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간담회
- 조용익 부천시장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간담회

3월 27일

- (주)제브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전임회장 간담회

3월 28일

- 인천의료기사연합회 연합 학술대회

3월 29일

- 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광주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3월 30일

- 2026년 제1차 보수교육평가위원회 회의

3월 31일

- 제2차 사무국 업무회의



2026 April

4월 1일

- 보건복지부 간담회

4월 3일

- 대의원총회 임원 간담회
- 학술부 업무활동
- 제4차 상임이사회의

4월 4일

- 제238차 경기이사회의
- 제5차 인사위원회 회의
- 연수원 유방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4월 5일

- 광주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4월 7일

- 보건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실습교육 개강식

4월 8일

- 지멘스 업체 미팅

4월 9일

- 복지·권익부 & 삼성제휴사업팀 업무활동

4월 11일

- 무료 법률상담
- 2026년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4월 12일

- 2026년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 인천분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4월 15일

- 디자이너 성형외과(압구정) MOU 관련 미팅

4월 16일

- 제4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미팅
- 무료 법률상담

4월 17일

- 제5차 상임이사회의
- LG 복지몰 협약 및 광고 협조 요청 업무활동

4월 18일

- 연수원 유방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4월 19일

- 의료기사법 관련 방안 및 기자회견 일정 논의



4월 20일

-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임팀장 미팅
- 의료기사법 개정안 한지아 의원 발의 건 국회 항의 방문

4월 21일

-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의료기사법 개정안 한지아 의원 발의 건 국회 항의 방문
-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 준비 대책 회의

4월 22일

- 재무부 업무활동
- 의료기사법 개정안 한지아 의원 발의 건 국회 항의 방문

4월 23일

-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 준비 대책 회의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실습교육 종강식
- 백석문화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4월 24일

- 2026년도 제1차 전문방사선사시험원 운영위원회 회의
- 복지·권익부 & HDC 아이파크몰 업무활동
-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 참여(1차)

4월 25일

- 2026 대한CT영상기술학회 제27회 춘계학술대회
- 2026년도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 2026년 제23차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 제25회 미추홀 국제학술대회
- 2026년 제1차 보수교육강사 양성교육
-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2차 집회 관련 대책회의

4월 27일

- 2026년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2차)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4월 28일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신임 임원진 간담회

4월 30일

-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순회 타운홀 미팅
- 보건의료 적정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추진본부 회의
- 제1차 학술위원회 회의

2026 May



5월 1일

- 인천광역시회 전임회장 워크숍

5월 2일

- 인천광역시회 전임회장 워크숍
-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 관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단체장 회의

5월 4일

- 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제1차 청구실명제 TFT 회의
- 디자이너 성형외과(압구정) MOU 관련 미팅

5월 6일

- 제34차 태국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 청와대 대통령실 국민경청 비서관(배진교 의원) 간담회

5월 7일

- 제34차 태국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3차)

5월 8일

- 제34차 태국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5월 9일

- 제34차 태국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 연수원 산부인과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제1차 학제단일화 TFT 회의

5월 11일

- 디알젼 협력업체 대표 미팅

5월 12일

- 연수원 심장초음파 실습교육 개강식

5월 13일

- 제2차 보수교육평가위원회 회의

5월 14일

- 제1차 정책연구위원회 회의
- 재무부 업무활동
-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순회 타운홀미팅

5월 15일

- 제6차 상임이사회의

5월 16일

- 인천분원 심장초음파 전문화교육 개강식
- 2026년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 2026년도 대한방사선과학회 학술대회

5월 17일

- 부산가톨릭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5월 18일

-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촉구 국회 항의 방문
- 제1차 국제교류위원회 회의

5월 19일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 질병관리청 간담회
- 의료기사법 개정안 소위 상정 관련 국회 방문
-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 보수교육 관리에 관한 상임이사 업무활동

5월 21일

- 한국건강관리협회 MOU 관련 미팅
- 전문방사선사시험원 업무활동
- 건강보험 정책 대응 및 영상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분야 간담회

5월 22일

- 제16회 부산광역시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웰컴디너

5월 23일

- 제16회 부산광역시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 무료 법률상담

5월 25일

-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4차)

5월 27일

- 제1차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회의

5월 28일

- 제1차 연수원운영위원회 회의
- 연수원 심장초음파 실습교육 종강식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60차 임시이사회

5월 29일

- 제31대 감사진 간담회
- 제1차 방사협보편집위원회 회의

5월 30일

- 연수원 산부인과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 연수원 유방영상 전문화교육 개강식
- 2026년도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 제1차 권익보호위원회 회의
- 2026 충청북도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 제1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5월 31일

- 광주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상복부초음파 전문화교육 종강식

#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규모 집회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조속 처리 강력 촉구

박종창 회장 “특정 직역 권한 확대 아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  
 ‘지도’ → ‘지도 또는 처방’ 개정 촉구... “의료 접근성 향상 위한 민생법안 강조”



자유발언 중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지난 4월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대규모 집회에 적극 참여하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상정 및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8개 단체 소속 의료기사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국민 중심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번 집회의 핵심 안건은 남인순 의원과 최보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 및 회원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각 단체 대표장 구호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 및 회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특히 현행 ‘지도’ 중심 규정이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와 방문형 의료-재활 체계 확대에 현실적인 한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이 필요한 검사와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은 병원 중심에서 국민 삶의 현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행 법체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검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닌, 국민의 의료 접근성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 및 회원

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종창 회장은 “국회는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국회는 의료현장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국민 불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을 즉각 논의하십시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며, 직역 갈등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탁상행정보다 현장의 현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인 입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집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며, 대한방사선사협회 6만 2천 회원과 50만 의료기사단체의 뜻을 모아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함께 외치

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수요자 중심 의료기법! 즉각 개정하라!”  
“민생법안 외면 말고! 즉시 처리하라!”  
“의료현실 외면 말고! 의료기사법 개정하라!”

의료기사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직역 갈등을 위한 법안이 아닌,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국민 건강권이라는 중대한 가치가 특정 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안전한 검사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지아 의원 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 대한방사선사협회 “현장 현실과 국민 안전 반영한 재검토 촉구”

객관적 데이터와 임상 현장 기반의 합리적 역할 분담 필요  
특정 직역 업무 제한보다 책임성·안전성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최근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본 개정안이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 안전, 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한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그간 축적되어 온 전문성 확장 흐름과 경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이미 국내외 다양한 임상 사례와 제도적 검증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의 안정성과 효과성은 충분히 입증되어 왔다. 다수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의뢰·처방 하에 전문 인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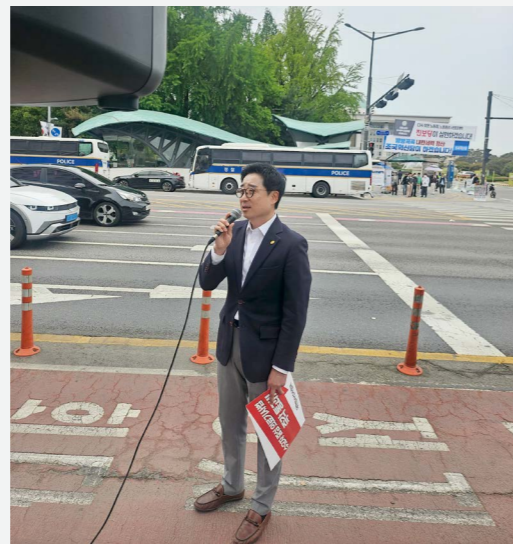
또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특정 직역의 업무를 제한하려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의료사고는 개별 직역의 문제가 아닌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특정 직역 규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의무기록 관리 강화와 행위 기반 책임소재 명확화 등 실질적인 환

자 안전 대안을 이미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에 본 협회는 6만 2천 명의 회원과 1만 5천 명의 교수 및 재학생, 총 7만 7천 명을 대표하여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합리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의료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향후에도 객관적 근거와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필요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수요자가 원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개정 촉구 의료기사 1,000여 명, 부산 해운대서 대규모 집회 개최

국민건강 지켜내는 민생법안 즉각 상정하라!  
의료현실 외면 말고 의료기사법 즉각 개정하라!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소속 의료기사 1,000여 명은 지난 5월 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역 1번 출구 앞 광장에 집결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즉각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총궐기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의 법안 상정 거부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이 정치권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이번 부산 집회에서 보여준 의료기사 직역의 대동단결이 법안 통과 결정적인 전환점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기사 직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의료기사 전체 직역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라고 강





조하며, 현 의료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윤상근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운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며,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 34인이 공동 발의하고 노인·장애인·사회복지 관련 27개 단체가 지지한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단체의 반발과 김미애 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인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이며, 부산 재송역 광장에서부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김미애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왕복 약 1km 구간을 평화적으로 행진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기총 집행부는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현실화하는 것은 국민 편익과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 일부 직역의 억지 논리에 의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끝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50만 의료기사의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부산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부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 활동과 국회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인력기준 법제화, 이제는 이행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인력 기준 의무화 필요성 강조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2026년 4월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료 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의료 붕괴라는 현실 속에서, 그동안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에 의존해 유지되어 온 의료체계의 한계를 짚고,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기준 의무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대한방사선사협회를 포함한 12개 보건의료 직종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다.

박종창 회장은 “방사선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은 현재 인력 부족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업무 부담을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환경, 법 기준 미준수, 감정노동 등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반드시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계

기로, 실효성 있는 인력 기준 마련과 의무화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방사선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 환경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병상당 인력 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인력 기준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운 의원 역시 “지역과 분야별 현실을 반영한 인력 기준과 재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창 회장은 끝으로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직역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은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닌 ‘환자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인력 기준 법제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중소의료기관 노동환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2026년 3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지역 중소병의원 보건의료 노동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의료기관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병·의원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미준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논의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실과 김윤 의원실, 관련 협회 및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실태조사는 대구지역 300인 미만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노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박종창 회장은 “중소병·의원은 국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현장이자 지역의료로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열악한 노동조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미준수, 폭언·괴롭힘 문제 등은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보건의료 노동환경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급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의료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대구지역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장 관련 법령 등 기본적인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법적 의무 준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직무에 대한 표준적인 노동조건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창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대구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한방사선사협회도 보건의료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기관 내 ‘면허 범위 준수’ 실질적 변화 이끌어낸다.

「간호법」 내 간호인력 업무범위 준수 및 방사선사 업무 수행 금지 관련 협조 요청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회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상으로 「간호법」상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준수 및 방사선사 고유업무 수행 금지와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방사선사의 법적 업무범위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관련 법령과 직역별 업무범위가 적절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인력의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규정된 가운데, 「간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PA)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이번 조치는 「간호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역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24년 「간호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의 고유업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회, 각 정당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정

책 건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법안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며,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박종창 회장은 “방사선사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전문인력”이라며, “각 직역이 법적 면허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며, 방사선 관련 검사 업무가 반드시 법적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내 ‘무면허 신고 게시판’을 통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각 의료기관 및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과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의료기관에서 무면허자가 초음파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협회는 해당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에 수차례 사실 확인과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은 “초음파 검사 운영 체계를 방사선사 중심 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협회에 전달했으며, 현재 방사선사 인력 신규 채용 및 재배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 모든 방사선 관련 검사 업무를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박종창 회장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령 준수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매우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올바른 검사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검사 청구 실명제 법제화 추진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 ‘제34차 태국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참석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파타야에서 개최된 ‘제34차 태국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각국 및 세계방사선사협회(ISRRT)와의 교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 주요 행사 일정
  - 5/7 2026 34th Thai Society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nual Conference
    - Opening Ceremony
    - Representatives Welcome Dinner
  - 5/8 EACRT Asia Supporting Fund meeting
    - Gala Dinner
  - 5/9 Closing Ceremony

5월 7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주최국인 태국을 비롯해 한국, 대만, 홍콩, 일본, 마카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와 세계방사선사협회(ISRRT)가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 및 부스 오프닝에는 한국 대표단으로 문철홍 부회장 외 2명이 참석했으며, 문철홍 부회장이 대표자로서 직접 리본 커팅식에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저녁에 진행된 대표자 환영 만찬에는 한국 대표자 박종창 회장 외 3명이 참석했다. 각국 대표자들과 선물을 교환하였고, 특히 베트남 방사선사협회의 Tai Van Lok 회장은 오는 6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에 대한방사선사협회를 초청하였다.

5월 8일에 열린 한국, 일본, 대만이 참석한 동아시아 지원 기금 회의(EACRT Asia Supporting Fund meeting)가 열렸다. 한국에서는 박종창 회장과 김성택 국제교류위원이 대표로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6년 아시아(Asia) Fund 기금을 사



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2027년 기금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일본 학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61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학술대회 관련 세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저녁에 개최된 갈라 디너에 한국 대표자 모두 참석하여 홍콩 방사선사협회와 MOU 체결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추후 메일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5월 9일에 열린 폐막식에 참석해 2박 3일 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 2026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변화와 혁신의 가치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 미래의 방사선사’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주관하는 「2026년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4월 11일 전북대학교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회 정병화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회를 포함한 전국의 방사선사와 10개 대학교 방사선학과 재학생이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서 국내회원 연제발표 33편, 국제회원 연제발표 8편, 학생 연제발표 37편으로 구성되었다.

약 890여 명의 국내 회원, 330여 명의 재학생, 100여 명의 협력사 관계자, 약 30명의 외국 회원(몽골,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 등 총 1300명 이상의 방사선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화합과 전문 지식 소통의 장일 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증진과 성취도를 높이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내빈으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을 비롯하여 대의원총회 이현용 의장, 김진외, 유세종, 김동환, 문철홍, 박성모 부회장과 서울특별시회 임종천 회장, 부산광역시회 윤상근 회장,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 인천광역시회 황덕기 회장, 광주광역시회 정명진 회장, 대전광역시회 이진욱 회장, 울산광역시회 권인혁 회장, 경기도회 곽호영 회장, 강원특별자치도회 이홍규 회장, 충청북도회 임기선 회장, 충청남도회 김미영 회장, 전라남도회 최현철 회장, 경상북도회 김상희 회장, 경상남도회 임성은 회장, 제주특별자치도회 고은남 회장,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구혜정 회장,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양선욱 회장,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양선욱 회장, 대한영상치의학





기술학회 김승태 회장,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석종민 회장,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이임범 회장, 대한CT영상기술학회 장상규 회장,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원준재 회장,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박양목 회장,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홍동희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전국 시도회장 및 전문학회장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오전 9시에 접수 및 등록으로 문을 연 학술대회는 국제논문발표, 재학생 논문발표, 보수교육 운영개선 정책 간담회로 이어졌고 런천 심포지엄 후 인문강좌, 개회식, 회원논문발표, 정책연구과제 공청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학술대회에서는 방사선사의 권익향상과 방사선학 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시상들이 있었는데 개회식 시상 부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회장에 동군산병원에 임지영 회원, 예수병원 조정은 회원이 공로상에 영광대학교병원 유진오, 장영찬 회원이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상에 익산병원 이성신 회원, 전북대학교병원 김태용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학술논문 시상에서는 회원 부분 최우수 학술상에 전북대학교병원 이경숙 회원, 우수학술상 청주의료원 오광균 회원, 장려 학술상 국제성모병원 송채연 회원, 영광대학교병원 권성철 회원, 최우수 포스터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문영재 회원이 수상하였고 재학생 부분 최우수 학술상은 신한대학교 조성민 학생이 우수 학술상은 영광대학교 정이슬 학생, 한서 대학교 배채원 학생, 우수포스터상 춘해보건대학교 배찬혁 학생이 수상하였다.

폐회식에서는 광영곤 학술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학술대회의 전반적인 성과 보고가 있었고 경품 추첨 후 전북특별자치도 정병화 회장이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 회원들과 현장에서 공헌해 주신 임원진에 감사드리는 인사말과 함께 「2026년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 2026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60차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함께한 60년, 성장과 도약으로 열어나가는 SRTA의 미래!」

지난 3월 21일(토), 서울 코엑스 4층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2026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60차 국제 학술대회」가 전국 방사선사 회원과 학생, 해외 초청 인사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내 방사선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의료영상 기술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국제 학술대회가 제6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간 이어온 학문적 전통과 미래 비전을 함께 조망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2,162명이 등록하여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참가 인원은 회원 1,471명, 재학생 664명, 외국 회원 2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임상 현장과 교육기관, 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술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올해 학술대회 슬로건 공모전 우수작으로는 박상조(세브란스병원) 회원의 「함께한 60년, 성장과 도약으로 열어나가는 SRTA의 미래!」가 선정되었다. 이번 슬로건은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영상 기술 발전과 회원 화합의 가치를 담아내며 큰 공감을 얻었다. 행사에는 국내외의 주요 내빈들도 참석하여 국제 학술대회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임종천 회장과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회장 및 기술학회장 그리고 대만 타이베이시 방사선사협회(TPART)의 Huang, Shan-

Su 회장, 일본 도쿄도 방사선사협회(TART)의 Tetsuo Eda 회장, 시가현 방사선사협회(SART)의 Takeda Noriaki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국제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학술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아시아 각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방사선학 발전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하였다.

- 서울특별시장상  
김세영(세브란스병원), 유민(녹십자아이메드 강남의원), 임상욱(중앙대학교병원)
- 공로패  
김동환(삼성서울병원), 김학문(보라매병원), 박성모(건국대학교병원)
- 감사패  
게르베코리아, 동보헬스케어, 디알젬, 홀로직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신 의료영상 기술과 AI 기반 영상 분석, 방사선 안전관리, 임상 응용 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발표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실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와 최신 의료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제60차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우수 연구자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며 학술대회의 품격을 더욱 높였다.



- **SRTA 대상**  
고예원(삼성서울병원)
- **학술 최우수상**  
최우담(이대서울병원), 한다혜(삼성서울병원)
- **학술 우수상**  
나보슬(서울대학교병원), 임재봉(세브란스병원)
- **장려상**  
제희경(세브란스병원), 최성민(서울의료원), 전창민(서울아산병원)
- **구연상**  
김수철(보라매병원), 이상빈(삼성서울병원), 이예림(보라매병원), 정동민(연세암병원), 정호성(서울대학교병원)
- **포스터 최우수상**  
이중은(서울아산병원)
- **포스터 우수상**  
박미현(이대서울병원)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연구 발표의 장을 넘어, 미래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방사선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딥러닝,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방사선사의 학술 연구와 임상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학문적 성장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학술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제60차 국제 학술대회는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시에,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회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SRTA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직능단체 정책 제안식서 의료현장 개선안 제시

2026년 5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는 각 분야 직능단체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능단체별 정책 협약 및 제안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를 대표하여 임중천 회장과 박조훈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보건의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한 직역의 요구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 현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에 둔 실질적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의 검사 건수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적정 검사 체계 마련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이날 정책 제안식에서 “상급종합병원 새벽 이동형 X-ray 검사 수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새벽 시간대 병동 이동형 촬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방사선사의 피로 누적과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 이동형 X-ray 검사는 중환자실, 응급환자,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지만, 관행적으로 반복 시행되는 사례 또한 존재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반복되는 이동 촬영 과정에서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와 환자 안전 문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환자 상태와 임상적 필요성을 고려한 적정 촬영 기준 마련”과 “과도한 새벽 이동촬영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검사 제한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효율적 검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큰 공감대를 얻었다. 또한 의료기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도 함께 제안하였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의료인 위로금 및 지원금 지급 대상에 의료기사 직군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함께 수행하는 의료기사 역시 동일한 범위 안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방사선사는 감염병 대응, 응급 촬영, 중증환자 검사 등 의료 최전선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방사선사는 선별진료소 및 중환자 영상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 위험 속에서 의료현장을 지켜왔지만, 일부 지원 정책에서는 제외되는 현실이 반복되었다. 이에 협회는 “의료현장을 구성하는 모든 보건의로 인력이 존중받는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사선 분야 외에도 여러 직능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선언적 협약이 아니라 실제 의료현장과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임종천 회장은 행사 참석 후 “방사선사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보건의료 인력”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고,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권익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 검사 환경과 안정적인 근무 체계

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협약 및 제안식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방사선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2026년도 타이베이 국제 학술대회 참가

2026년 4월 25일(토)부터 4월 28일(화)까지 임종천 회장 외 12명의 대표단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26 Taipei International Congres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에 참가하였다.



대표단은 국립 대만대학병원 견학과 함께 2026년도 타이베이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으며, 국제세션에서는 최우담(이대서울병원) 회원이 「Evaluation of Coronary Instant Lumen Visibility and Overall Image Quality Using Ultra-High-Resolution Mode」, 한다혜(삼성서울병원) 회원은 「Dose Analysis and Optimization Strategies for Digital Mammography Systems Based on Clinical Data」, 제희정(세브란스병원) 회원은 「A Phantom-based Quantitative Comparative Evaluation Study on the Image Quality Characteristics of Barium sulfate and Iohexol in VFSS」, 최성민(서울의료원) 회원은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Degradation and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for Mobile X-ray Shielding Barriers」라는 주제로 연구 발표를 하였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智啟未來 醫療精彩 / 影領新程 健康常在”로, 인공지능(AI)과 첨단 의료영상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역할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학술대회장에서는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 저선량 촬영기술, 영상 품질 향상 기술, 방사선 안전관리 등 다양한 최신 의료영상기술과 연구 동향이 소개되었으며, 실제 임상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국제세션에서는 국가별 의료 시스템 및 영상검사 프로토콜의 차이를 비교·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환자 안전과 검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임상적 접근 방법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방사선사의 전문성 향상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타이베이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대만·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방사선사들이 참석하여 최신 의료영상기술과 방사선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술 발표 외에도 병원 견학, 국제 교류 프로그램, 네트워킹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국 방사선사들과 임상 경험 및 연구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국가별 의료 환경의 차이 속에서도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부산광역시 방사선사회, '제16회 종합학술대회' 성료... 학술 연구와 화합의 장 열어

5월 23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개최  
학부생 및 회원 논문 구연, 초청 특강, 도전 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2027년 BEXCO 춘계 국제학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역량 결집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윤상근)가 지난 5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제16회 부산광역시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가톨릭대학교 예수영 교수와 인제대학교 김강오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은 이 세션에서는 CT·MRI 공용 팬텀 설계, AI(딥러닝·ResNet-50) 기반 영상 분류 및 평가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총 12편의 다채로운 연구 성과가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방사선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진행은 서경두 부산광역시회 총무이사가 맡았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대회식에서는 강은보 부회장의 방사선사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윤상근 회장의 대회사 진행됐다. 이어 박종창 대한방사선사협회장과 황원주 부산광역시 의료기사연합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표창, 부산광역시회장 표창, 감사패 전달 및 우수논문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행사는 윤상근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으며, 미래 방사선사 인재들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학부생 논문 구연' 세션이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부산





특히 오후 초청 특강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및 권역외상센터의 이호준 교수가 '부산대학교병원의 외상 인터벤션'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임상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일반 연재 발표(좌장 최우전 박사)'에서는 간 섬유화 평가, 심장초음파 분석, CNN 모델을 이용한 폐렴 분류, 관상동맥 중재술 시 피폭선량 연구 등 전문적인 임상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DK Medical Solutions의 특강, 회원들이 참여하는 '도전 골든벨', INFINITT Healthcare의 제품설명회 등이 이어져 학술적 교류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연출되었다. 행사는 폐회식과 경품 추첨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내년 2027년 4월 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될 '2027 대한방사선사 춘계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앞두고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협회는 내년 국제 대회의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 그리고 도약'을 실천하는 성공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윤상근 회장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회원과 학부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는 최신 지견과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내년 부산에서 개최될 국제학술대회 역시 전 회원의 역량을 모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 "2027년 부산에서 만납시다!" 부산광역시회, 전북 학술대회서 '파상공세' 홍보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윤상근)가 2027년 부산에서 개최될 차기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포문을 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6년 4월 11일, 전북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현장에 윤상근 부산광역시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6명이 방문하여 차기 대회 홍보를 위한 열띤 활동을 펼쳤다.

### 전북에서 미리 만난 '2027 부산의 열기'

이번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회 주관으로 열린 올해 춘계학술대회를 축하하는 동시에, 내년 4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될 '2027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전국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광역시회 임원진은 행사장 곳곳에서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부산 대회의 슬로건인 '소통, 화합, 도약'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전광판과 홍보물을 통해 공개된 부산 광안대교와 벡스코를 배경으로 한 화려한 비주얼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2027년, '해양도시 부산'에서 다시 만납시다

부산광역시회가 예고한 2027년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대회명: 2027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 일시: 2027년 4월 3일 (토)
- 장소: 부산 벡스코 (BEXCO)
- 주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윤상근 회장은 "전북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2027년 부산 대회는 전 세계 방사선사들이 지식을 나누고 화합하는 역대 최고의 국제적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늘 전북에서 보여준 부산광역시회의 하나 된 결속력은 내년 벡스코에서 펼쳐질 학술대회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 2026년 1차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3월 14일(토) 2026년 첫 번째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보수교육은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 제한이 적용된 이후 처음 시행된 교육으로, 총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대구광역시회는 원활한 교육 운영과 회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김청모 회장을 비롯한 18명의 임원이 상황실을 운영하며 교육 전반을 지원하였다. 김청모 회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회원들이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임원진의 노고를 당부하였다.

또 이날 상황실에는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심재구 학과장도 방문하여 협회 임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을 위한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 1교시 : <필수교육> 알고 쓰는 조영제 사용 - 심우열(바이엘코리아) ▲ 2교시 : <필수교육> 사례로 풀어보는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 유선용(MK컨설팅) ▲ 3교시 : 퇴행성 척추질환과 방사선검사 - 김승환(삼성서울병원) ▲ 4교시 : 무릎의 올바른 정면 및 측면 방사선 영상의 이해와 고찰 - 성동찬(삼성서울병원)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각 교시마다 실무와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이루어졌으며, 참가 회원들의 높은 호응 속에 교육이 마무리되었다.

보수교육 종료 후 진행된 회의에서 김청모 회장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수준 높고 안정적인 2차 보수교육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대구광역시회관 재정비 추진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2019년, 30년 숙원사업이었던 대구광역시회관 개관을 통해 회원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회관은 중앙회를 제외한 전국 시도회 가운데 최초로 마련된 독립 회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회관 개관 이후 대구광역시회는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시설 관리를 통해 회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또한 회관은 각종 회의와 교육, 회원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대구광역시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대구광역시회는 변화하는 협회 운영 환경과 회원 수요에 발맞추어 회관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는 회원 편의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회무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내부 환경 개선과 시설 정비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광역시회는 이번 회관 재정비를 통해 회원들이 보다 편안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회원 중심의 회관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원무책임자 협의회 체육대회 참석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5월 17일 개최된 '2026년도 대구광역시 병원 원무책임자 협의회 춘계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각 병원 원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활동과 친목 교류를 통해 상호 유대감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간 소통과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육활동과 함께 자유로운 교류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 중에는 의료기관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원무행정 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과 병원 간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의 소통 강화와 민원 응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며 뜻깊은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대구광역시회 임원진은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 의료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유관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보건으로 발전에 기여해 나갈 뜻을 전하였다.

### 2026년 제23차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는 오는 7월 4일(토) 대구 EXCO 동관에서 「2026년 제23차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최신 의과기술과 임상 지견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학술 발표와 전문 분야 강연을 통해 회원 간 학술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의료기기 박람회인 '2026 메디엑스포 코리아(MEDI EXPO KOREA)'와 함께 진행되어 최신 의료장비와 의료산업 동향을 함께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CO 전시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회원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술 및 산업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회는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신 의료 동향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회 임원진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학술 교류와 화합을 더욱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봉사를 향한 진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회, ‘성언의 집’ 정기 봉사로 따뜻한 나눔 이어가

제18대 집행부 3월 첫 발걸음 이어, 4월 힘찬병원·한림병원 봉사선사들과 함께 온정 피워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봉사를 향한 진심은 막을 수 없다”는 열정 아래, 복지부이사(국제성모병원 최미리내 선생님)를 필두로 여러 임원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했다. 비록 참여 인원은 적었지만, 어르신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현상이었다.

이러한 나눔의 온기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다시 한번 피어났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살랑이던 지난 4월 18일 토요일, 성언의 집에서 두 번째 정기 봉사활동이 이어졌다.

“꽃잎이 내려앉은 자리마다, 따뜻한 마음이 피어납니다”라는 말처럼, 이번 봉사활동에는 힘찬병원과 한림병원의 의료진 및 관계자 10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소중한 손길을 내밀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 봉사자들의 정성은 그 어떤 봄꽃보다 따스하고 향기롭게 지역사회를 환하게 밝혔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인천시회의 정성 어린 발걸음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지역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다.

인천광역시회 봉사선사회 제18대 집행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솔선수범해 준 임원진과 바쁜 일상을 쫓겨어 나눔의 온기를 전해주시는 힘찬병원·한림병원 봉사자 열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따뜻한 봄날의 기억을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질 제18대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회 봉사선사회(이하 인천시회) 제18대 집행부가 2026년 봄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연속성 있는 정기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보건으로 단체로서의 따뜻한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인천시회의 올해 첫 사회공헌 발걸음은 지난 3월 21일 토요일, 동인천에 위치한 ‘성언의 집 노인복지센터’에서 힘차게 시작되었다. 당일은 아쉽게도 타 사도회의 학술대회 일정과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많은 인원이 함께하지는 못

## 인천광역시 방사선사, 2026 상반기 리더스 간담회 개최

**인천시내 대학병원·중소병원 한자리에... 박종창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참석해 격려!!**

인천광역시 방사선사들의 화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지난 3월 12일, 소통으로 여는 방사선사의 미래, 2026년 상반기 리더스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지역의 의료 현장의 핵심 리더들이 모여 방사선사의 전문성 강화와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창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 회장은 축사를 통해 “방사선사의 권익 보호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황덕기 인천광역시 방사선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리더스 간담회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며, ‘존중이 만드는 변화의 힘’이라는 신념을 강조하며, 인천의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방사선사 회원 모두를 존중과 소통, 화합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내 주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부서장 및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리더는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 배움의 열정에서 국제적 교류까지,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광역시 방사선사회

**제1차 보수교육 및 제25회 미추홀국제학술대회**



인천광역시 방사선사회의 2026년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학술적 열기와 회원 간의 끈끈한 정으로 가득 차다. 회원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1차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제25회 미추홀국제학술대회’까지 연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광역시 방사선사회’의 멋진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신규 방사선사의 임상 적응을 돕다: 제1차 보수교육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난 3월 28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올해의 시작을 알리는 ‘2026년도 제1차 방사선사 보수교육’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준비된 장소가 좁게 느껴질 정도로 수많은 방사선사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공부 열기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4교시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올해 첫 교육인 만큼, 신규 방사선사들이 실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는 각 분야의 임상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각 세션은 △1교시 김영범 방사선사(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방사선 치료의 진화’ △2교시 최유진 방사선사(이대목동병원)의 ‘투시검사실 간담도계 검사의 이해’ △3교시 이동환 방사선사(인천성모병원)의 ‘뇌졸중의 이해’ △4교시 김기봉 방사선사(인천성모병원)의 ‘CT 기초이론과 검사 과정 중 참고사항’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교육은 신규 방사선사들이 병원 실무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이어질 다음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완벽한 출발점이 되었다.

**"존중과 소통으로 미래 선도": 제25회 미추홀국제학술대회 많은 관심 속에 마쳐**

보수교육의 성공적인 열기는 지난 4월 25일, 가천대학교 간호대 강당에서 열린 ‘제25회 미추홀국제학술대회’로 그대로 이어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는 인천 방사선사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축사 영상이 상영되어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방사선사들을 격려했으며,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이 당일 전국의 수많은 학술제 중 인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중앙회 상임이사 및 감사진, 전국 각 시도회장단, 인천광역시회 역대 전임 회장들이 함께 자리해 선배 배 간의 끈끈한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황덕기 인천광역시 방사선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존중이 만드는 변화,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광역시 방사선사회”를 강조하며, “임기 동안 회원 간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협회를 크게 발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학술 프로그램 역시 국제 학술대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풍성하게 꾸려졌다. 가천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신한대학교, 안산대학교, 을지대학교 등 미래 인재들이 준비한 재학생 논문 10편을 비롯해 회원 논문 7편,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 방사선진료기사회(시오타니 마사타카 회장 등 8명 참석)에서 발표한 국제 논문 3편 등 총 20편의 수준 높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한-일 양국의 최신 방사선 기술 트렌드를 공유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의료 현장 및 실생활 속 AI의 변화’를 주제로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인천광역시 방사선사회**

이번 두 차례의 큰 행사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탄탄하게 기초를 다진 신규 회원들과 끊임없이 연구하고 소통하는 선배 회원들이 보여준 열정은 인천광역시 방사선사회의 밝은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방사선사의 권익을 지키고 의학 발전을 이끌어갈 인천광역시 방사선사회의 행보에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방사선사 권익 보호 및 위상 강화 위한 활발한 행보 이어가...



경기도방사선사협회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정책협약식 & 지지선언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가 최근 다양한 대외 활동과 정책 참여를 통해 방사선사의 권익 보호와 위상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회는 지난 2월 23일 경기도 의료기사 연합회(이하 경의연) 회장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경의연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향후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서 3월 2일에는 경기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린 김동연 경기도지사 북콘서트 문화행사에 참석하여 회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방사선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3월 15일 수원 화성 일대에서 진행된 경의연 행사에는 연합회 회장단과 함께 경기도지사 후보 및 현역 국



김동연 경기도지사 북콘서트 참석

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의료기사직군의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3월 17일 경기도 수원 소재의 마라톤빌딩에서 진행된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행사에서는 경기도 교육감 및 도지사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의료기사직군의 제도적 지원확대와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회는 이 자리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역할확대, 근무환경개선, 그리고 공공의료 내 역할 강화 등을 주요과

제로 제시하며 정책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경기도회는 “방사선사는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외 활동과 정책 협력을 통해 권익 보호와 직역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회는 향후에도 정책제안, 대외협력, 회원소통 강화 등을 통해 방사선사 권익 신장과 방사선사직군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의료기사 권익 향상을 위한 뜻깊은 자리, 조용익 부천시장 지지 행사 참석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는 지난 3월 26일 경기도 부천에서 의료기사총연합회가 주관한 의료기사법 및 처방권 관련 현안에 힘을 보태고 있는 조용익 부천시장 지지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회 곽호영 회장을 비롯하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분회장 정우준, 학술부장 박승현, 학술위원 김대건이 함께 자리해 뜻을 같이 했다.

경기도회는 이와 같은 대외 협력 및 정책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역사회 공헌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사의 위상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방사선사협회, 조용익 부천시장 지지선언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현근택 용인시장 예비후보 지지 및 정책간담회 행사 참석



경기도 방사선사회, 현근택 용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는 지난 4월 22일(수) 용인시 소재 현근택 용인시장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기도회 곽호영 회장을 비롯하여 경기도회 임원진이 함께하여 방사선사 권익 향상과 의료 현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역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기도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대외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 안산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 모의면접에 참석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곽호영 회장, 방사선학과 학생들에게 방사선사가 갖춰야 할 자세와 역량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해...



안산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모의면접에 참여해 학생 심사 중인 경기도회 곽호영 회장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 곽호영 회장은 지난 5월 15일(금) 안산대학교 방사선학과에서 진행된 학생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참석해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의면접은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실

무 역량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면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취업 면접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회 곽호영 회장은 면접관으로 참여해 학생들의 자기소개, 전공 이해도, 임상 적응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면접 종료 후에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감, 환자 중심의 태도 등에 대해 강조하며 예비 방사선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역량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경기도회는 앞으로도 미래 방사선사를 꿈꾸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장 리포트

# 기부와 봉사로 지은 '기적의 병원'

안산빈센트병원의 주말은 나눔의 열기로 뜨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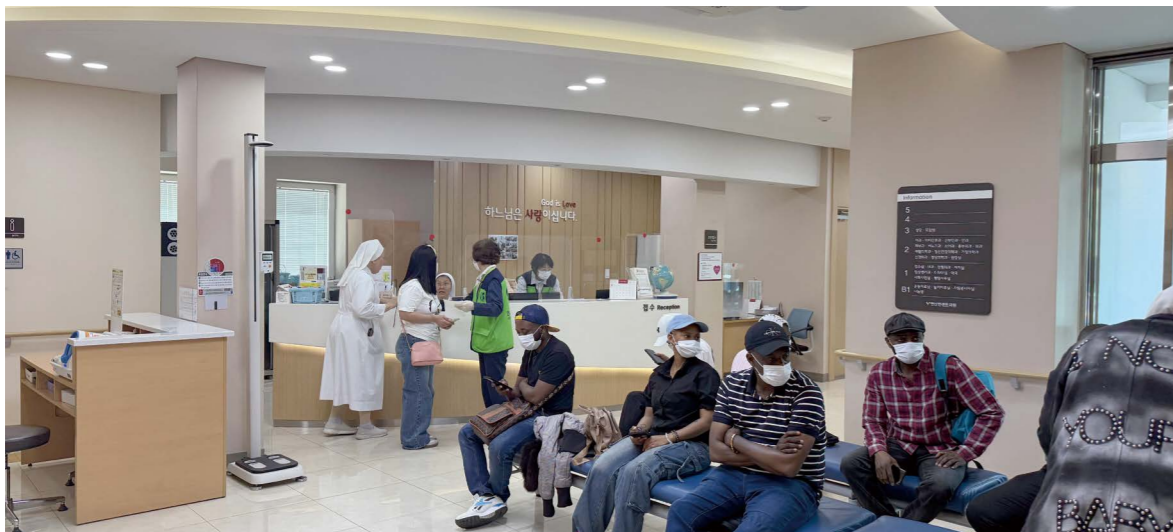


'안산빈센트의원'이다. 이곳은 병원의 문턱조차 넘기 힘든 외국인 노동자와 소외계층에게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의 성지다.

### 오직 '기부'와 '봉사'로만 움직이는 톱니바퀴

안산빈센트병원은 여느 병원과는 시작부터 다르다. 수녀님들의 헌신 아래 오직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의료인들은 소중한 주말 시간을 기꺼이 내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지원 활동에 함께하고 있으며, '조건 없는 나눔'이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

안산의 한 모퉁이, 주말이면 국적을 초월한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오직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며, 원장 수녀님들을 필두로 모든 의료진이 대가 없이 마음을 보태는



투명한 운영과 병원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계하는 이사진의 헌신은 안산빈센트병원을 지탱하는 숨은 뿌리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지역사회 나눔 실천으로 이어지며,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 대학교수와 방사선사 18인이 펼치는 '드림팀'의 인술

봉사활동은 일반촬영(X-ray) 업무를 중심으로 환자 안내, 촬영 준비 및 검사 수행 등 영상의학 검사 지원 전반으로 이루어진다. 참여한 방사선사 회원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촬영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 현장에는 임상 경력이 풍부한 대학교 교수진과 국내 주요 거점병원 및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방사선사 18명이 순번을 정해 주말마다 참여하고 있다. 학문적 깊이와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만큼, 안산빈센트의 영상의학실은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평일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전문가들이지만, 주말이면 다시 이곳으로 달려와 가운을 입는다. 인건비나 운영 효율보다 환자 한 사람의 건강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이들의 헌신은 안산빈센트병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그렇게 모인 작은 나눔과 따뜻한 연대는 오늘도 지역사회 곳곳에 조용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 이사진의 헌신]

병원 운영의 뒤편에는 묵묵히 행정적·영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 이사진의 노고도 있다.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부금의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응대로 편안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 18인의 등 뒤에서 길을 여는 봉사이사의 헌신

현장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뒤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는 이가 있다. 바로 경기도회 봉사이사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해주는 동료들에 대한 감사 또한 늘 잊지 않는다.

봉사 참여를 망설이는 회원들에게 그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한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해오던 익숙한 촬영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생애 처음 받아보는 의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방사선사로서의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참여해보시면 그 뿌듯함 때문에 다음 달에도 다시 오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또 다른 봉사자를 현장으로 이끄는 힘이 되고 있으며, 그렇게 모인 마음들은 오늘도 안산 빈센트위원의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독학 영어로 마음을 잇는 봉사부장의 리더십

이 거대한 봉사 시스템의 중심에는 현장을 총괄하며 환자와 직접 소통하는 봉사부장이 있다. 그는 수년간 영어를 독학하며 외국인 환자들이 검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긴장을 덜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스스로는 완벽한 영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낯선 타국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에게 건네는 그의 따뜻한 안내와 진심 어린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비 고장으로 검사가 약 20분간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봉사부장이 직접 환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자 오히려 웃으며 기다려주는 모습도 이어졌다. 환자들의 이러한 신뢰와 응원은 봉사부장을 비롯한 18인의 전문 의료진이 매주 현장을 지켜나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진정한 인술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합니다"

방사선사는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거친 영상 한 장이 질병을 발견하고,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전문성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안산빈센트위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의료인의 전문성과 나눔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운영 아래 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의료진이 자신의 주말을 기꺼이 내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대와 봉사의 마음은 오늘도 안산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다.

충청남도회 2026년 제1차 오프라인 보수교육 성료



- 1교시 안전한 검사를 위한 감염관리(필수교육) - 송대영 강사
- 2교시 실제 인공지능 연구 사례를 통한 개념 이해 - 김상현 교수
- 3교시 Shoulder & Hip 질환의 일반촬영 검사 - 김정진 강사
- 4교시 골밀도 검사의 이해 - 오왕균 강사

강사들은 최근 의료분야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방사선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며, 영상 판독 보조, 검사 효율 향상, 품질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화에 뒤처지기보다는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절히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미영 회장은 앞으로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발전시켜, 회원들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전문성을 준비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난 5월 16일(토) 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남도회는 14시부터 18시까지 백석문화대학교 글로벌외식관에서 제1차 보수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보수교육 연간 상한 시간이 변경된 후 첫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임원진 및 150여 명의 회원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교육은 4교시로 구성되었으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준비되었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지역 향토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추진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고은남)는 3월 29일, 농업회사법인 한백김치유한회사(대표 김기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크라팜(회장 김봉협)과 연속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향토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공동 마케팅 및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은남 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와 협회의 상생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로가 확대되고, 제주 향토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힘쓰는 동시에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구매: 제주특별자치도 협회사이트 로그인(ID,비번은 동일)후 배너 클릭!

※ 한백김치: 10% 할인(오프라인)

※ 오크라팜 제주돼지고기 돈까스: 도매가

# 대한방사선과학회 창립 50주년 학술대회 성료

'보이지 않는 빛의 역사 50년, 인류를 위한 빛의 미래 100년'

방사선 과학의 반세기 역사를 딛고 미래로

-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서 개최, 전국 방사선학계 석학과 회원 다수 참석
- 박종창·박명환 회장, 해외 석학 시라이시 준지 교수 등 국내외 축하사절 따라
- 박지훈 변호사 특별강연, 최종학 교수 역사 연설, 관현악단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대한방사선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지난 16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반세기 학회 역사를 돌아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 기술이 융합된 방사선 과학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내외 방사선 학계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과 전국대학방사선과교수협의회 박명환 회장이 단상에 올라 학회의 50주년을 축하하고 미래 발전을 격려했으며, 해외 석학 시라이시 준지(Shiraishi Junji) 교수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국제적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법륜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의 특별 강연이 진행되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 변호사는 흥미롭고 유익한 강연을 통해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방사선사 및 학계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인사이트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상영된 '50주년 기념 영상'은 학회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재조명해 회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고려대학교 최종학 교수는 특별 역사 연설을 통해 대한방사선과학회가 대한민국 의료 방사선 분야의 학술적 근간을 세우기까지의 발자취와 향후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전문 관련



약 팀의 격조 높은 축하 공연이 더해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학술 세션 역시 50주년의 위상에 걸맞은 깊이 있는 발표들로 채워졌다. 홍보 포스터를 장식한 5명의 핵심 연자가 메인 세션을 이끌며 최신 연구 트렌드를 제시했고, 일반 회원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논문 발표에서는 의료 현장의 혁신을 이끌 성과들이 대거 쏟아졌다.

대한방사선과학회 민정환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학술대회는 석학들의 역사적 통찰과 각계 전문가의 명강연,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첨단 융합 연구가 조화를 이룬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지난 50년의 유산을 발판 삼아 향후 글로벌 방사선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학회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AI와 정밀 방사선치료 미래조명”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새롭게 출범한 제20대 윤일규 회장과 임원들의 대한방사선치료학회가 4월 25일 강릉아산병원 대강당에서 '2026년도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신 방사선치료 기술과 AI 기반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돼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 참여했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윤일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학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 강화와 회원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방사선치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중창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AI시대에 대응하는 전문성 강화와 회원 중심 협회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사선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제도개선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방사선치료 분야의 최신 임상 기술과 AI 기반 연구를 다룬 초청강연이 큰 관심을 모았다. 강릉아산병원 최원식 교수는 ‘폐암과 간암의 체부정위 방사선치료를 주제로 고정밀 방사선치료의 임상적용과 치료효과를 소개했으며, 강원대학교병원 신준봉 교수는 ‘방사선종양학과 AI기반 연구 및 동향’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방사선종양학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최신 연구사례와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상현장의 문제 해결과 치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6편의 다양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 『개구장애 환자를 위한 방사선치료용 공기주입식 구강고정장치의 개념적 설계 및 임상 워크플로우 적용가능성』  
- 삼성창원병원\_임해민
- 『레이저 셋업 기반 흉부 중앙 및 유방암 방사선 치료 시 표면 유도 시스템 병용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 평가』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_권형호
- 『Halcyon 유방암 방사선치료에서 Transit dose 기반 Gamma passing Rate와 PTV 선량 인자의 상관관계 및 임상적 의의』  
- 강릉아산병원\_김종덕
- 『폐암 방사선치료 시 EPID기반 PerFRACTION in-vivo Monitoring을 이용한 선량 변화 분석 및 유용성 평가』  
- 삼성서울병원\_강준엽
- 『TomoTherapy에서 jaw Encoder 변위에 따른 Longitudinal Beam Profile FWHM의 민감도 분석』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_김병진
- 『전립선암 정위체부방사선치료에서 hydrogel spacer와 rectal balloon적용에 따른 직장 선량 비교: 3D 프린팅 팬텀 기반 연구』  
- 서울아산병원\_우성호

한편, 우수 구연상에는 서울아산병원의 우성호 회원, 최우수 구연상에는 강릉아산병원의 김종덕 회원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전임 회장단에 대한 공로패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AI 기반 연구와 정밀 방사선치료 기술 발전을 공유하고, 회원 간 학술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대한핵의학기술학회(KSNMT)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제18대 대한핵의학기술학회



대한핵의학기술학회(KSNMT)는 지난 3월 방사분과 박훈희 회장 이하 30명의 이사 및 부장단이 공식 임명되었으며, 이로써 제18대 집행부의 공식 출범과 함께 핵의학 기술의 전문성 강화와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집행부는 회원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학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위해 4개의 핵심 분야별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했다. 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핵의학영상(PET/CT), 핵의학영상(감마), 보험정보 공유 등 전문 영역별로 실시간 정보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도 마련되었다. 학회는 지난 4월 16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SNMT 회원들에게 교육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해

당 혜택은 2026년 RI 및 SRI 교육과정부터 적용되어 회원들의 자기계발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5월 1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73차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최신 핵의학 기술 동향은 물론, 연구 윤리와 논문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이뤄졌으며, 19편의 논문 및 업무 지식 공유를 통해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8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핵의학기술학회(JSNMT) 큐슈 지회에서 위원장 세키카와 유야를 포함한 큐슈대학교 및 구마모토대학교 병원 소속 발표자들이 참석하여 국제 학술 교류의 의미를 더했으며, 2028년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제18대 대한핵의학기술학회는 이러한 성과들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임기 동안 회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핵의학 기술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예정이다.

##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제28차 춘계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디지털 의료영상과 AI 기반 미래 의료기술 방향 제시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2026년 5월 23일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제28차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의 방사선사, 교수, 연구자 및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의료영상 및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제1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학술대회로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디지털 의료영상 분야의 발전 방향과 임상 적용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전 학생 세션과 오후 회원 세션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오전 학생 세션에서는 전국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의 다양한 연구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대구보건대학교·청주대학교·을지대학교·신한대학교 등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여 의료영상 기술, CT 및 MRI 영상 분석, 인공지능 활용, 방사선 차폐 연구 등 창의적이고 임상 중심적인 주제를 발표하였다.

오후 회원 세션에서는 DeepNoid 현지훈 연구소장의 "의료영상 분야 최신 연구 AI" 특강과 가톨릭대학교 천원중 교수의 "의료영상 및 치료에서 AI 활용"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어 일반연제 발표에서는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 영상 분석, 방사선 안전관리, 차세대 영상기술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공유되며 학문적 교류의 폭을 넓혔다. 참석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영상 환경 속에서 데이터와 알고리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춘계학술대회 단체사진

즘 기반 기술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정보와 지식을 얻어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석종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 의료영상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회원 여러분이 학술적 교류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 의료영상 기술이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재학생들과 교수진의 열정과 도전이 학회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며 미래 의료영상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앞으로도 디지털 의료영상 분야의 학술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원 중심의 학술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26년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해양수도 부산서 국내외 내빈 대거 참석... 한일 MOU 체결 및 30주년 공로패 수여로 미래 도약 다짐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회장 이임범)는 5월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양일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올해로 뜻깊은 30번째 돌을 맞이한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의 지난 3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성 강화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화합과 학술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번 기념식과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중창 제26대 회장, 대한영상의학간호사회 윤수호 회장, 그리고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인영회) 신지훈 회장 등 주요 협력 학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와 격려사를 전했다. 특히 학회의 기반을 닦은 남기철 초대회장을 비롯한 역대 명예회장단도 참석하여 감동을 더했다. 또한,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온 일본 혈관조영 및 중재적 방사선 기술자 전문 인증위원회(JAPIR)의 타카오 이치다(Takao ICHIDA) 전임회장과 주요 임원진이 대표단으로 공식 참석하며 국제적인 연대감을 공고히 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3명의 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30주년 공로패(협회장상)'가 수여되었다. 수상자인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신지훈교수, 신구대학교 강병삼교수, 타카오 이치다 전임회장은 임상 현장에서의 중재 기술 역량 강화는 물론, 방사선 방호와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며 학회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KSCVIT와 일본 JAPIR 간의 '조직 간 협력 관계에 관한 합의서(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양 조직은 향후 5년간 학술·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 교류 컨퍼런스를 교대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 향상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 [전문학회 소식]

이어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28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전문 논문 11편, Case 4편, 포스터 4편, 일본 발표 논문 3편, 재학생 논문 6편 등이 포함되었다. 학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다양한 연구와 임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Session 1. dose optimization in IR'에서는 이희경 좌장(서울아산병원)의 진행 아래 방사선 방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에서 초청된 발표자들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The role of the latest fluoroscopy system in IVR』, Michio NAKAYAMA(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 『Fundamental study in optimal contrast media concentration in CBCT after WEB implantation for cerebral aneurysm』, Yusuke TORADA(Osaka Metropolitan University Hospital)
- 『Disclosure of Dosimetry results and update of diagnostic reference levels(DRLs) in Japan for 2025』, Ryota KAWANAMI(Kindai University Hospital)

학술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최우수 논문상
  - 『사용자 맞춤 형상 제작(User-Customizing)이 가능한 조영제-PVA(Polyvinyl Alcohol)혼합 산란선 차폐체의 공정 최적화 및 유용성 평가』, 조자룡(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우수 논문상
  - 『복부대동맥류 최대 직경 측정의 재현성 향상: 딥러닝 기반 Self-Configuring nnU-Net의 비교 연구』, 박종운(서울아산병원)
  - 『중량 측정법 기반의 기준 부피(Reference Volume)확립을 통한 뇌동맥류 부피 측정의 정확도 검증 : 3D 프린팅 팬텀을 이용한 기존 방식과 AI 자동 분석(MPneuro)의 비교』, 최준영(서울아산병원)
- 우수 구연상
  - 『ARTIS icono biplane 장치를 이용한 Sine spin DynaCT의 영상품질 평가 : 팬텀 기반 정량적 분석』, 권태근(양산부산대학교병원)
  - 『Snuffbox 접근을 이용한 진단적 뇌혈관조영술의 임상 적용 경험 : 기술적 성공률과 방사선 노출 분석』, 정진환(강동경희대학교병원)

- Case of the Year 상
  - 『Physician-Modified Endograft(PMEG)를 이용한 복부대동맥류의 혈관내 치료』, 서정원(아주대학교의료원)
- 우수 포스터상
  - 『동맥경류 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ation embolization(TARE) 시행시 Yttrium-90 사용에 의한 종사자의 피폭선량 분석에 관한 연구』, 문중현(화순전남대학교병원)
- 명예회장단상
  - 『중재적 시술에서 환자 체형과 테이블 높이에 따른 시술자 피폭선량 평가』, 이승민(칠곡경북대학교병원)
- 전문학회 협의회장상
  - 허영철(울지대학교)

이임범 회장은 대회사에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해양수도 부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대회를 열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지난 30년 동안 선배 및 회원 여러분이 일궈낸 눈부신 성취를 밀거름 삼아, 안정 속에서 더욱 큰 도약을 이루어내겠다. 앞으로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전문방사선사의 법적 직무 제도를 공고히 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임원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혁신을 현실로, 미래 의료를 함께 여는 KMIIAA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2026년 제23차 춘계학술대회 성료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KMIIAA)는 2026년 4월 25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2026년 제23차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제9대 원준재 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재학생 논문발표, 오후에는 회원 논문발표가 진행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재학생 논문 12편과 회원 논문 8편 등 총 2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의료영상정보관리 및 의료방사선 관리 분야의 최신 정책, 연구 동향,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온라인 123명, 오프라인 129명 등 총 252명이 참가하였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학술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료영상정보관리 분야의 전문 지식을 나누고,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KMIIAA)와 일본 의용화상관리학회(JSMIM)의 학술 교류 20주년을 맞이한 해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일본의용화상관리학회 Kanyu Ihara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하여 양 학회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국제 학술 교류의 중요성과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김완석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회의 성장과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기리고, 회원 간 화합과 감사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학술대회 수상자로는 회원 부문에서 전창민 회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재학생 부문에서는 이민성 학



생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계기로 의료영상정보관리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학술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술 협력을 통해 미래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학술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6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성료

제8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 다짐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는 2026년 3월 1일부로 제7대 김상현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제8대 박양목 회장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지속적인 학술 발전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학술 및 교육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회는 지난 2026년 3월 7일 제23차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한 Hybrid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62명이 등록하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해외 논문 발표와 국내 논문 발표를 비롯하여 재학생 논문 발표,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특히 의료영상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학술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미래 의료영상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들의 연구 역량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어, 2026년 4월 4일에는 제8대 임원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발대식에서는 새 집행부 임원 소개와 함께 향후 학회 운영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 중심의 학회 운영과 학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박양목 회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영상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학술적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는 춘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열기를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학회는 오는 2026년 7월 25일(토) ‘제3차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의료인공지능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임상 적용과 최신 지견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어서 회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회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활동과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의료영상기술 발전과 방사선사의 전문성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ISSUE	59
강릉아산병원 김세훈 방사선사, 교통사고 심정지 환자 구해 눈길	
ISSUE	62
강동성심병원 신재욱 방사선사,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환자 생명 지켜	
ISSUE	64
의료 영상의 가치를 예술로 시각화하다	
ESSAY	68
위험을 통제하고 신뢰를 만든다	
REVIEW	72
일상 속의 방사선 과학	
REVIEW	74
의료 영상 기술의 정점,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그리는 미래 의료의 청사진	
REVIEW	78
아랍에미리트의 의료, 방사선사 교육으로 의료 경쟁력 높인다	

## 강릉아산병원 김세훈 방사선사, 교통사고 심정지 환자 구해 눈길



강릉아산병원은 방사선사가 신속한 응급처치로 교통사고 심정지 환자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12일 강릉아산병원에 따르면 김세훈 방사선사는 지난 4월 26일 오후 5시 쯤 강릉시 한 호텔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한 차량이 도로 옆 도랑에 빠져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김 방사선사는 즉시 운전하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당시 차량에는 최돈기(74)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맥박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더욱이 최 씨의 다리가 차량 핸들에 끼어 있어 심폐소생술을 위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마친 김 방사선사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 홀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

원에게 최 씨를 인계했다. 이후 최 씨는 강릉아산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특히 환자가 아산병원 직원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최돈기 씨는 “방사선사님이 아니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며 “가족들과 식사하고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세훈 방사선사는 “눈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환자분이 건강을 회복해 가족 곁으로 돌아가게 돼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연계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

오늘 한 것

### 차를 멈춰 세운 호의가 만든 기적

휴일에 운전을 하다 도로 옆 도랑에 빠져있는 다른 차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릉아산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 김세훈 씨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랑에 빠진 차 안에는 7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신고 후, 간신히 운전자를 차 밖으로 옮긴 김 씨는 진흙 바닥임에도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운전자는 뇌손상 없이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휴일에 사실 쉽지 않은 이 선행, '아름다운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협했던 그 운전자는 다름 아닌 김 씨가 근무하는 병원 동료 직원의 가족이었던 것이죠. 이 우연은 목직 한 울림을 줍니다.

대가 없이 베푼 선행이 그냥 허공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주변, 나아가 나를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를 쓴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의를 실천하는 것이 호의"라며 "호의의 축

적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심코 건네는 작은 친절과 호의가 '나를 둘러싼 기적'이 될 수도 있음을, 차를 멈춰 세운 김세훈 씨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한 것'이었습니다.

출처 : JTBC(<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8090>)



지난 4월 26일 주말 오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음악을 들으며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중, 삼삼오오 모여 있는 사람들 틈으로 도로 옆 눈두렁에 멈춰 선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전미숙으로 차가 빠졌나?'라는 단순한 생각도 잠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직감이 앞섰습니다. 순간 가던 길을 멈추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

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불길한 예감에 차량 내부를 확인해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조수석 방향으로 의식을 잃고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순간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신속하게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여 심정지 상



태임을 인지했고, '어떻게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침착하게 옆에 있는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함과 동시에, 핸들에 상체가 끼어 있던 운전자를 조심스럽게 진흙바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발 호흡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며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았던 심폐소생술 교육과 매뉴얼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홀로 심장압박을 했던 5분 남짓의 시간은 제게 너무나 절박하고도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곧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당시 환자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처치 후 환자가 이송된 병원이 바로 제가 근무하는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였다는 사실은 다음 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천과 119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중환자실에 계셨던 그분이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간절함을 담아 심장압박을 했던 그 운전자분이 바로 같은 병원 동료 직원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달 전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별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터라, 동료 직원이 아버지와 슬픈 이별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감사함과 안도감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신 어르신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어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 역시 "건강하게 회복해 주셔서 제

가 더 감사합니다"라며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해왔던 65회 이상의 헌혈과 심폐소생술 대회 참가 등을 통해 나눔과 실천을 쌓아왔던 작은 행동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사로서 환자들을 대하며 때로는 지치고 후회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무척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사선사 회원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병원 안에서 정확한 검사로 환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밖에서도 위급한 이웃에게 용기 있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방사선사들의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아주신 어르신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음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꾸준히 건강관리 하셔서 오래오래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 강동성심병원 신재욱 방사선사,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환자 생명 지켜



강동성심병원은 심혈관조영실 신재욱 방사선사가 한강공원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전했다.

강동성심병원에 따르면 신재욱 방사선사는 지난 4월 12일 오후 2시경 서울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즉시 환자에게 달려가 곧바로 CPR을 시작했으며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약 10분간 CPR을 이어간 끝에 환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회복했으며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안전하게 인계됐다.

신재욱 방사선사는 “자전거에서 쓰러진 환자를 보자마자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해 바로 CPR을 시행했다”며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심혈관조영실에서 쌓은 임상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설명이다. 평소 심정지 등 응급환자를 접하는 환경에서 근무해 온 만큼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처치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

송헌호 병원장은 “신재욱 방사선사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이 한 생명을 살렸다”며 “앞으로도 강동성심병원 구성원 모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가족들과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 옆에서 50대 한 분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던 중에 환자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저에게 소리쳐 달려가 보았더니 환자분의 맥박 호흡이 없는 걸 확인하고 바로 평지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이 신고를 해주시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곧장 119대원분들과 경찰분들께 상황 설명 후 인계드리고 복귀하였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응급상황에 대처해보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겨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분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고 회복한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 의료 영상의 가치를 예술로 시각화하다

## 메디컬 아티스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방사선사 김현정

《착하게 설명해주는 초음파》 전체 삽화 작업부터 의료 3D 프린팅 연구까지,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메디컬 아트로 확장하다. 임상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의료 영상과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메디컬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방사선사가 있다. 최근 출간된 도서 《착하게 설명해주는 초음파》의 전체 삽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시각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작가(방사선사 김현정)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1.** 《착하게 설명해주는 초음파》 책의 삽화를 직접 작업하셨는데, 먼저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착하게 설명해주는 초음파》는 서울메디칼초음파아카데미(SMUSA) 소속 14명의 임상 전문의들이 공동 집필한 초음파 교육서입니다. 초음파를 처음 배우는 의료인부터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 의료진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부학, 검사 방법, 주요 질환 등을 실전 중심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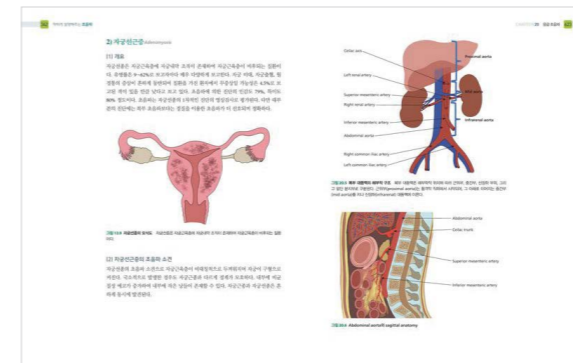
저는 이 책의 전체 삽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심장, 두경부, 간담도, 소화관, 산부인과, 소아 등 다양한 파트를 아우르며 초음파 영상과 해부학적 구조, 병변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제작했습니다.

**Q2.** 책 전체 삽화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특히 가장 어려웠던 파트가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우선 근골격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파트의 삽화를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량 자체가 상당했습니다. 또한 14명의 저자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하다 보니 저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원하는 그림 스타일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림 작업뿐만 아니라 저자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수정 작업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책이 최종 출판되기까지 2~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파트는 두경부 파트였습니다. 두경부는 갑상선, 침샘, 림프절, 혈관, 근육, 신경 등이 매우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해부학적 구조 자체가 복잡합니다. 게다가 초음파 영상과 실제 해부학 구조를 연결해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출판 직전까지 가장 많은 수정이 이루어진 파트도 두경부였고,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일러스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파트 역시 두경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3.**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란 정확히 어떤 직업인가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복잡한 의학 지식과 인체 구조, 질병의 메커니즘을 그림이나 3D 모델링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전문 시각 예술가입니다.

흔히 메디컬 일러스트를 단순한 그림 작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적인 표현보다 의학적 정확성입니다. 의학 서적과 논문 삽화, 환자 교육 자료, 의료 시뮬레이션 콘텐츠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Q4.** 방사선사로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길을 걷게 되셨나요?

저는 2017년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X-ray, Mammo, CT 업무를 담당하며 임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임상 경험이 쌓일수록 의료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학 정보를 시각화하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토샵, 드로잉, 소묘 등을 배우며 그림 공부를 시작했고, 의료와 예술을 융합하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MI2RL)에서 의료 3D 프린팅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CT와 MRI 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모델과 의료 교육용 팬텀을 제작했습니다.

**Q5.**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 3D 프린팅 연구원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MI2RL)에서 근무하며 CT와 MRI 영상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3D 모델을 제작하고, 수술 계획용 모델과 의료 교육용 팬텀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환자 맞춤형 폐 임플란트 개발, 귀 켈로이드 압박 장치 개발과 같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의료진, 공학자, 기업과 협업하였고, 국내외 학회 발표와 논문 연구에도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3D 모델을 출력하는 것을 넘어 의료영상 데이터를 실제 의료기기로 연결하는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6.** 방사선사 출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강점은 의료 영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사선사는 CT, MRI, 초음파 영상을 통해 실제 인체 구조와 질환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 속 구조물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의학이라는 학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는 단순히 인체를 잘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질환, 검사, 치료 과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그림 실력도 중요하지만, 메디컬 일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정확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료 현장을 경험한 방사선사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7.** 왜 더 많은 방사선사들이 이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방사협보에 원고를 기고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착하게 설명해주는 초음파》는 저에게 가수가 첫 앨범을 발표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첫 작품이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방사선사 선생님들께 메디컬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상의학 방사선사이기 때문에 핵의학이나 방사선치료학 등 모든 분야를 깊이 있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방사선사들이 교육 콘텐츠 제작, 메디컬 일러스트, 3D 프린팅 등의 분야에 참여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 정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하는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8.**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외에도 방사선사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에 머무르지 말고 '메디컬 아티스트'로 영역을 넓혀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수술 가이드와 의료 교육용 팬텀을 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이 3D 프린팅을 넘어 VR:AR 콘텐츠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 CT와 MRI 같은 의

료영상입니다. 그리고 의료영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직군 중 하나가 방사선사입니다.

앞으로 메디컬 아트 영역은 2D 그림을 넘어 3D 모델링, 3D 프린팅, VR:AR 콘텐츠까지 확장될 것이며, 방사선사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9.**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I 덕분에 이제는 누구나 몇 줄의 프롬프트만으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AI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그림을 잘 만들어도 수정을 요청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수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메디컬 일러스트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프롬프트를 입력하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마주하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림 의뢰를 하시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로서 AI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Q10.** 의료 분야의 메디컬 일러스트 역시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AI는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2020년 7월이었습니다. 이후 포토샵, 드로잉, 소묘를 배우고 3D 모델링과 3D 프린팅까지 공부하며 《착하게 설명해주는 초음

파》의 삽화 작업을 하기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3~4년 만에 프롬프트 몇 줄만 입력하면 그림은 물론 영상까지 생성하는 ChatGPT, Gemini, Veo, Kling과 같은 AI가 등장했습니다. 5년이나 10년이 아니라 단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는 앞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AI는 의학 일러스트 역시 충분히 그려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11.** 그래도 메디컬 일러스트 및 아티스트를 권하시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문성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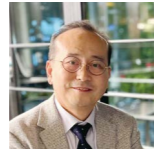
메디컬 일러스트와 메디컬 아트의 핵심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방사선사는 임상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지를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필요한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될수록 전문성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가 2025년 12월 아산병원 연구원을 퇴사하고 다시 임상으로 돌아간 것도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지 않더라도 그림, 3D 모델링, 3D 프린팅, VR:AR 등을 배우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 그림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연과 기회를 만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 3D 프린팅 연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메디컬 아트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과 진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험을 통제하고 신뢰를 만든다

현장에서 완성되는 방사선사의 방호 철학



양한준  
전주대학교 교수

저녁 9시 30분, 응급실이 분주하다.

교통사고로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가 실려 들어온다.

담당 의사는 즉시 CT를 지시하고, 방사선사는 환자를 맞이한다.  
구급대원이 전한 정보로는 흉부 외상과 복부 통증이 동반되었다.

촬영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

‘가장 낮은 선량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이것이 바로 방호의 첫 번째 원칙 - 정당화와 최적화의 시작이다.

### 응급의 순간, 판단의 속도 안에 담긴 ‘정당화’

의료방사선은 장비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이미 ‘쓸 이유가 정당해야 한다. 이때 방사선사의 첫 번째 판단은 속도가 아니라 타당성이다. 흉부부터 복부까지 전 범위 스캔을 요구하는 지시라도, 방사선사는 즉시 환자의 상태, 혈압, 호흡, 외상 부위를 살핀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범위를 촬영하면 환자는 불필요한 피폭을 얻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놓친 손상 부위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정당화란 이 두 극 사이에서 생명을 살리되,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는 판단의 기술이다.

현장의 시간은 빠르지만, 그 속에서도 방사선사는 잠깐의 숨을 고른다.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즉시 두부로 검사 영역을 좁히고, 복부 내부 손상이 의심되면 추가 장비나 초음파 협진을 신속히 제안한다. 단 몇 초의 판단이지만, 이 짧은 순간이 환자의 생명과 피폭량을 동시에 결정한다. 정당화의 기준은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 책임 있게 묻고 설계하는 태도에 있다.

### 신속한 진단 뒤에 숨어 있는 조율의 예술 ‘최적화’

촬영이 시작되면, 최적화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휘된다. CT 한 장의 결과는 결코 기계의 산출물이 아니다. 관전류, 관전압, 회전속도, 슬라이스 두께 - 모든 설정값은 환자의 나이, 체격, 병력에 따라 달라진다. 정형화된 프로토콜을 그대로 적용하면 영상은 나오지만, ‘불필요한 방사선’도 함께 따라온다. 그래서 방사선사는 매 검사마다 세밀하게 조정하고, 환자의 숨결까지 감지한다.

응급 환자의 CT를 수행하면서도 방사선사는 자신의 위치를 안다. 의사는 진단을 판단하고, 방사선사는 진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마련한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전문 행위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환자에게 ‘지금 숨을 참으세요’라 말하는 목소리엔 단순한 절차 이상의 집중이 깃든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촬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최적화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의료방사선의 최적화는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충분히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 이것이 방사선사가 매 순간 균형을 맞추는 이유다. 너무 낮게 설정하면 재촬영이 필요하고, 너무 높으면 불필요한 피폭이 따른다. 한 번의 정확한 선택이 환자에게는 안전을, 의료팀에게는 신뢰를, 사회에는 의료의 효율을 의미한다.

### 자기 방호를 통해 완성되는 사회적 안전 ‘선량한도’

환자 촬영을 끝낸 뒤, 방사선사는 자신의 개인선량 기록이 남는다.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이 짧은 동작이 바로 ‘세 번째 원칙, 선량한도(Dose Limit)’의 실천이다. 직업적 피폭 관리야말로 의료방사선의 안전 문화를 뿌리내리는 첫걸음이다.

방사선사의 몸은 의료체계의 안전 경보 장치다. 종사자의 누적 피폭이 허용치를 넘지 않게 관리될 때만 방사선 사용 전체가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유지된다. 자기 방호에 대한 태도는 결국 환자 안전에 대한 감수성으로 이어진다. 낯가운과 목보호대, 선량계 하나하나가 의료 현장의 ‘보이지 않는 신뢰’의 상징이





다. 그것이 벗겨지는 순간, 환자와 종사자 모두의 보호막이 약화된다.

직업 방사선사는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노동자'일 수 없다. 자신의 안전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증명하는 전문가다. 방호는 곧 신뢰이며, 신뢰는 의료의 바탕이다.

### “조금 길어졌어요.” 환자의 체감과 신뢰

검사 후 환자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예전보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 말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다. 피폭이 많았던 건 아닐까,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방사선사는 답한다. “필요한 부분까지만 안전하게 찍었습니다.” “검사에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정확한 진단이 더 빨라질 겁니다.”

이 짧은 설명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환자의 불안은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되고, 신뢰는 설명의 존재에서 완성된다. 방사선사가 환자에게 단 몇 마디라도 ‘왜, 어떻게’라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의료방사선은 비로소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 설명은 의료의 기술을 인간의 윤리로 바꾸는 행위다.

### CT 공화국 속 전문가의 자부심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 세계에서 손꼽히는 ‘CT 다사용’ 국가다. 이 현실은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제이기도 하다. 영상의학의 진보는 양이 아니라 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많이 찍는 나라’보다 ‘잘 찍는 나라’. 즉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된 조건으로 얻어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전환의 중심에는 언제나 방사선사가 있다. 의료방사선은 기기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설계되며, 데이터는 그 판단의 결과물이다. 진단은 의사의 몫이지만, 진단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사선사의 선택이 그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매일 수천 장의 영상 이면에는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최적화와 방호의 조정이 숨어 있다. 그것이 바로 방사선사가 지닌 임상 현장의 숨은 해안이다.

### 자긍심과 경각심 - 보이지 않는 신뢰를 만드는 손

방사선사의 자긍심은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정이 환자의 생명에 직접 닿아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판단과 수행의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모든 선택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방사선사는 장비를 다루는 동시에 인간의 공포와 신뢰를 다루는 직업인이다.

그러나 자긍심은 방심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늘 하던 대로’라는 생각이 쌓이는 순간, 방호의 원칙은 흔들린다. 안전은 절차가 아니라 의식이고, 전문가의 품격은 속도 너머의 섬세함에서 완성된다. 방사선사는 늘 묻는다. “이 검사가 정말로 정당한가?” “이 설정이 환자에게 최선인가?” “나는 오늘 내 방호를 지켰는가?” 그 물음이 반복될 때 의료방사선의 신뢰는 멀어지지 않는다.

### ‘보이지 않는 선택’이 사회를 지킨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수많은 파일럿 같은 전문가들이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판단을 내려 사회의 안전을 떠받치고 있다. 방호의 3원칙 - 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 -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전문직의 인격과 윤리를 구조화한 철학이다.

의료방사선은 줄일 대상이 아니라, 관리되고 설계되어야 할 전문 행위다. 방사선사는 그 설계의 주체이며, 그 결과의 책임자다. 환자의 안전과 사회의 신뢰를 함께 떠맡은 이 전문직의 사명감은 기술의 발전보다 더 빠르게 우리 의료의 신뢰도를 높인다.

오늘도 현장의 방사선사는 수초의 결정 속에서 생명을 잇는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영상에는 언제나, 정당화와 최적화, 그리고 자기 방호를 실천한 전문가의 흔적이 담겨 있다.

그것이 바로 ‘CT 공화국’이라 불리는 이 나라를 ‘신뢰의 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다.



책소개글

# 일상 속의 방사선 과학

## 건강과 과학, 예술 속에 스며든 빛의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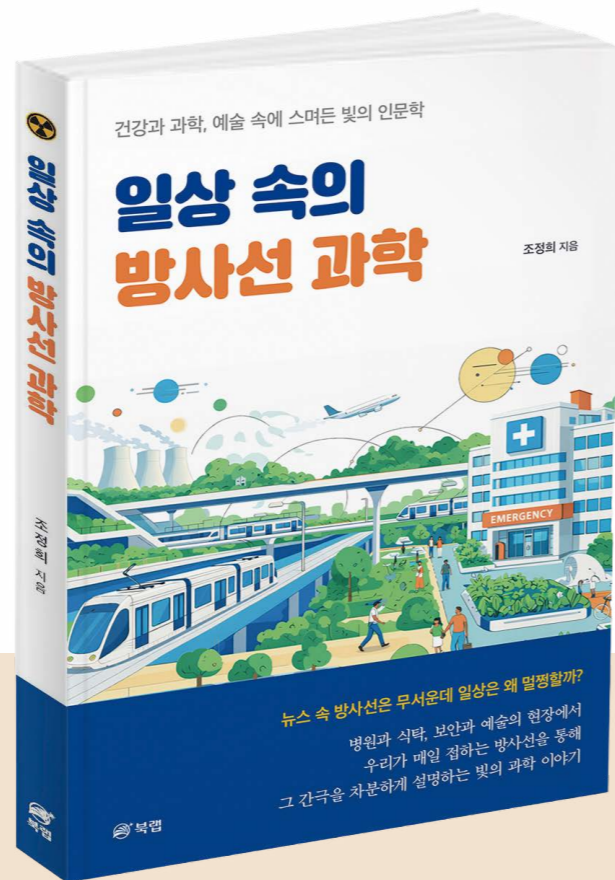
조정희 지음

현 (주)MHNCity AI 연구소장, 현 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겸임교수, 현 을지대학교 방사선학과 외래교수, 전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부장

복랩

2026년 3월 9일 발행

『일상 속의 방사선 과학: 건강과 과학, 예술 속에 스며든 빛의 인문학』은 방사선을 둘러싼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변화시키는지를 조명하는 교양 과학서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로 대표되는 위험의 이미지 뒤에 가려진 방사선의 본질을 재조명하며, 이를 자연이 지닌 정밀한 에너지이자 인류가 이해하고 활용해 온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다.



책은 의료 영상과 암 치료, 공항 보안, 식품과 의약품의 멸균,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고고학과 과학수사, 그리고 X-ray Art에 이르기까지 방사선이 우리의 일상과 문명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로 보여준다. 특히 저자의 오랜 임상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방사선이 생명을 살리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실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책의 핵심은 두려움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이해로 전환하는 데 있다. 나아가 과학과 예술의 접점을 통해 방사선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유와 감동의 대상으로 확장한다. 결국 이 책은 보이지 않는 빛인 방사선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며, 독자에게 과학적 통찰과 인문학적 성찰을 동시에 제시하는 여정을 안내한다. 더 나아가 학생과 일반 독자 모두가 방사선 분야에 대한 지식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익숙한 세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 이 책이 안내하는 여덟 가지 빛의 스펙트럼

- 1 막연한 공포를 확신으로 (제1장) 우리를 둘러싼 자연 방사선의 실체를 데이터를 통해 규명하며, 방사선이 '특별한 위험'이 아닌 '늘 함께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2 문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 (제2장, 제7장) 보안 검색부터 반도체 산업, 그리고 인류의 네 번째 에너지 혁명이라 불리는 원자력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서의 방사선을 조명한다.
- 3 생명을 구하고 일상을 지키는 파수꾼 (제3장, 제4장)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길어 올리는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과 생필품의 안전을 방사선이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 현장을 탐구한다.
- 4 시간을 되감고 진실을 판독하는 창 (제5장, 제6장) 수천 년 전 미라의 나이를 측정하는 고고학적 연대측정부터, 죽은 자의 침묵을 깨우고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과학수사의 현장까지, 방사선이 '정의의 도구'가 되는 순간을 포착한다.
- 5 과학에서 예술로, 존재의 본질을 비추다 (제8장) 인체의 구조를 기하학적 질서로 재해석하는 'X-ray Art'와 철학적 사유의 결정체 '조그렘(Xogram)'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선사하는 송고한 미학을 만끽하며 여정을 마무리한다. "두려움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감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수호하고,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며, 과거의 진실을 투명하게 비추는 빛.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마주해야 할 방사선의 진정한 얼굴이다.

[ 인터뷰 ]

# 의료 영상 기술의 정점,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그리는 미래 의료의 청사진

혁신적 기술력과 강력한 서비스 네트워크로 '환자 중심 케어' 실현



김진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헬시니어스 영상진단사업본부 김도영 본부장, 장비영업총괄 사업본부 문수호 본부장 마지막으로 고객기술지원본부 유선영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 "혁신은 연구와 신뢰에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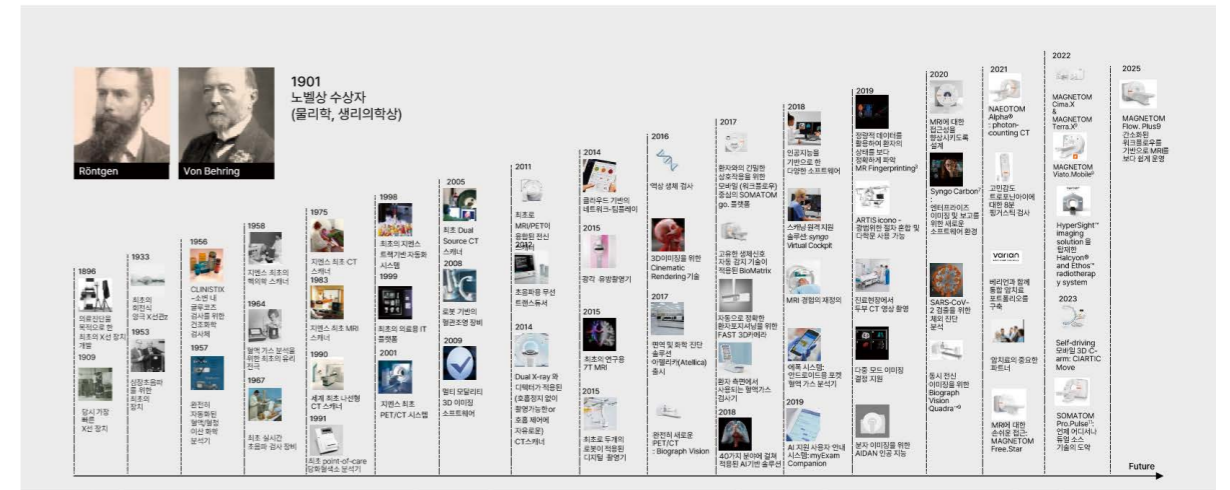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시작은 1895 독일에서 뢰트겐의 X선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방사선사라면 누구나 아는 역사적인 사건이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시작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작에 걸맞은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핵심 경쟁력은 '장비의 안정성'과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요약된다. 영상진단사업본부 김도영 본부장은 "지멘스 헬시니어스 장비는 한 번 도입하면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제공합니다"라며 장비 가동률이 98%에 달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장비 신뢰도를 강조했다.

특히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R&D 투자를 통해 기존의 한계

### 포톤 카운팅 CT와 0.7리터의 액체 헬륨 MRI로 의료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 예고

[2026년 4월 8일] 우수한 성능과 선도적인 기술로 인해 의료 영상 장비의 '첨단'으로 불리는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도약을 선언했다. 본지는 지멘스 헬시니어스 (주)한국법인의 각 사업부 본부장들을 만나 그들이 추구하는 핵심 경쟁력과 미래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의 인터뷰에는 지멘스

## 129년의 긴 역사



를 극복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234억 유로(한화 약 35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은 129년의 긴 역사와 혁신 정신에 기반한다. 한국법인 역시 약 1,3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포항의 초음파 공장 등을 통해 국내 의료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차세대 영상 진단의 주역, '네오톰 알파'와 '드라이쿨' 기술

특히 이번 인터뷰의 화두는 단연 차세대 의료영상 장비였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중장기 전략으로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CT 장비를 '포톤 카운팅(Photon-Counting)'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 • 네오톰 알파(NAEOTOM Alpha)

기존 CT와 달리 X선을 형광체를 거치지 않고 전기 신호로 직접 변환하며, 각 광자를 하나씩 카운팅하여 불필요한 노이즈를 줄였다. 0.2mm의 얇은 이미지 구현이 가능해, 미세

한 병변이나 스텐트 내 협착까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임상연구에서 우수한 성능을 평가받고 있다.

#### • 드라이쿨(DryCool) 테크놀로지

MRI 유지보수의 난제였던 헬륨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 기존 1,500L에 달하던 헬륨을 단 0.7L만 사용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쿼칭 파이프(Quench Pipe) 설치가 필요 없어 병원 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 • 플로우모션 AI

핵의학 분야에서도 선보이는 PET-CT에서 '플로우 모션 AI (FlowMotion AI)' 기술을 통해 테이블이 움직이며 연속적으로 촬영하는 방식을 도입, 스캔 범위를 사전에 설정 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부위를 최소화하면서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위만 스캔하도록 지원한다.

### AI, 기술의 방향성과 방사선사 역량의 확장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해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보조와 최적화'에 방점을 찍었다. '딥 리졸브(Deep Resolve)'는 AI 딥러닝 기반의 기술로 검사의 시간을 단축하



Photon Counting CT  
NAEOTOM Alpha®

Make the difference  
MAGNETOM Cima.X

See a whole new world of precision.  
Biograph Trinion

면서 동시에 향상된 고품질 영상을 제공한다. 모든 파트 MRI 스캔을 약 4분 이내에 마칠 수 있게 돕고, 이에 따라 병원의 검사 환경 그리고 환자 상황에 맞게 적용된 프로토콜을 사전에 세팅이 가능하여 유연한 검사 환경을 제공한다.

'마이이그잼 컴패니언(MyExam Companion)'은 환자 체형 및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효율적인 자동 검사 세팅을 지원한다. 촬영 목적에 따라 촬영범위, 촬영각도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 일관된 영상 품질을 얻을 수 있고, 그만큼 검사에 대한 소요시간 감소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생성형 AI 기반 제품은 없지만, 향후 스마트 이미징 벨류 체인에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신속한 환자 검사부터 다양한 영상처리, 판독 보조와 판독문 작성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로드맵은 전체 워크플로우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방사선사 선생님들의 반복적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수호 본부장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방사선사와 영상 의학과 의료진의 컨트롤 없이는 장비의 가치가 없다"며, AI가 의료진의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장비에 관련된 검사 요소들의 조절에 들어가는 시간을 환자 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리안메디칼시스템즈 인수에 핵심 가치: "스크리닝부터 치료, 추적관리까지 포괄하는 포트폴리오 구축"**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방사선 암치료 전문 글로벌 기업 베리안메디칼시스템즈를 2021년 인수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영상 기술과 베리안의 방사선 치료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통해 국내 정밀 암 치료를 선도하여 국내 의료진과 환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베리안은 방사선치료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지멘스 헬시니어스에 인수돼 암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환자 치료 여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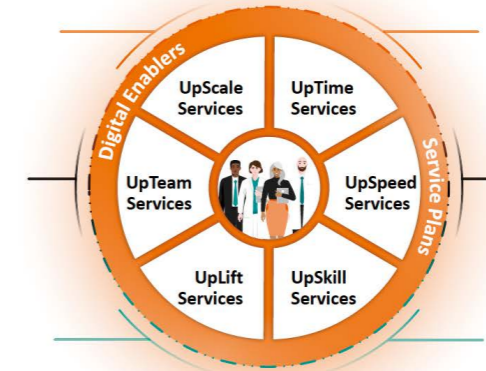


**고객 서비스 포트폴리오**

고객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 만드는 서비스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한 협력 지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위한 관리 솔루션



최상의 장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일상 업무 속도를 높이는 운영 지원

의료진의 장비 활용도를 높이는 전문 교육

**학술적 파트너십과 전폭적인 연구 지원**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또 다른 강점은 강력한 리서치 지원 조직이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리서치 전담 팀을 운영하며, 리서치 팀이 참여한 SCI등재 논문 19편을 기록하는 등 학술 연구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리서치 MRI센터를 개소하여 3T MRI MAGNETOM Vida를 설치, fMRI를 위한 장비와 행동 실험실을 구비하여 국내에서 MRI 관련 연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협력을 통한 상생으로 더 나은 의료 환경 구축할 것"**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대한방사선사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품 개발과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선영 본부장은 89%에 달하는 원격/고객방문 해결률과 24시간 내 예비 부품 배송완료율 98%를 자랑하는 서비스 조직을 통해 병원 장비 가동률(Uptime)을 안정적으로 유

지할 것을 약속하며, 실제로 임상에서 장비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사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방사선사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는 이야기도 전하였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관계자들은 "단순한 장비 판매를 넘어, 진단부터 시술, 암 치료에 이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통해 한국 의료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마지막으로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아랍에미리트의 의료, 방사선사 교육으로 의료 경쟁력 높인다



김상진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 I. 서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필자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궁 산하 왕립병원인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에서 영상의학과 총괄매니저(Senior Supervisor in Radiology department)로 근무하였다. 그 시간은 단순한 해외 근무 경험을 넘어, 의료의 본질과 시스템의 다양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소중한 여정이였다. 다양한 국적의 보건의료 인력과 환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며 체득한 경험은 국내 의료 환경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의료 시스템이 오랜 시간 제도적으로 정착된 북미나 유럽 국가들과 달리, 중동 지역의 의료 환경은 빠른 성장과 제도적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아랍 문화와 이슬람적 가치관이 의료 현장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은 이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환자 응대 방식, 성별에 따른 의료 인력 배치,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등은 서구 의료 체계와는 또 다른 맥락을 형성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의료 서비스의 운영 방식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왕립의료기관에 파견 근무하며 현지 대학교 방사선학과와의 교류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방사선학 교육 시스템과 국가 면허 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UAE의 방사선학 교육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영어 기반 교육과 다국적 교수진 운영을 통해 글로벌 의료 환경을 전제로 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가 면허 시험 제도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전문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와 직결된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한국의 방사선학 교육 및 면허 체계와 비교해 볼 때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교육의 안정성과 임상 실무 중심의 강점이 있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화와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인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특히 다국적 인력 수급을 전제로 한 면허 상호 인정 및 해외 인력 유입 정책은 중동 특유의 인구 구조와 노동 시장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방사선사의 인력 수급과 취업 시장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민 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 II. 본론

### 1 방사선사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

#### (1) 교육과정

중동 지역, 특히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한 방사선사(의료영상 전문가) 양성 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엄격한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업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국가 의료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인력 양성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동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주변적 사례가 아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국가 차원의 의료 투자 확대는 이 지역을 새로운 의료 허브로 부상시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 의료 교육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본 논의가, 국내 보건의료 인력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작은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료는 국경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으며, 인력 양성 또한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로만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 특히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한 방사선사(의료영상 전문가) 양성 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엄격한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업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국가 의료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인력 양성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이는 해당 직위가 단순 기술 인력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의료영상은 진단의 출발점이자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전문성 확보는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이 같은 교육은 자국 내 주요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Khalifa University, United Arab Emirates University, Higher Colleges of Technology, Gulf Medical University 등이 방사선 관련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과 명칭은 ‘Radiological Sciences’, ‘Medical Imaging’, ‘Radiological Technology’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지만,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균형 있게 결합한 4년제 학사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의학, 영상 물리학, 장비 운용, 환자 관리, 방사선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교육과정이 국제적 표준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아랍에미리트 특유의 의료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랍에미리트 의료 기관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환자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적 공간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단순히 영상 장비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국적 환자와의 의사소통, 문화적 민감성, 윤리적 판단 능력까지 함께 훈련받는다. 또한 최신 영상의학 장비를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임상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스스로를 ‘글로벌 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국가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방사선사 양성 제도의 엄격함과 표준화는, 단순한 자격 요건을 넘어 국가 의료 신뢰도를 지탱하는 토대라 할 수 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

의 방사선사 교육 모델은 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의료의 질은 사람에서 시작된다. 중동 지역이 보여주는 이러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은, 국제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2) 면허제도

아랍에미리트의 방사선사 면허 제도는 단순한 자격 부여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의료 전문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제도적 선언에 가깝다. 연방 정부와 각 토후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중 구조는 아랍에미리트 의료 행정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국가 차원에서는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이 기본 기준과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동시에 두바이에서는 Dubai Health Authority(DHA), 아부다비에서는 Department of Health - Abu Dhabi(DOH)가 면허 발급과 관리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중앙의 통일성과 지역의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구조로,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시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 볼 수 있다. 면허 취득 과정은 단계별 검증을 통해 전문성을 다층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학력 자격 인증은 기본 전제다. 지원자는 자국에서 취득한 학위가 아랍에미리트 학제와 동등한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공증 및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는 국제 인력 유입이 활발한 아랍에미리트 의료 환경에서 최소한의 학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첫 관문이다.

다음 단계는 면허 시험이다. 관할 보건당국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에서는 방사선 안전, 해부학과 생리학, 의료영상학, 장비 운용 등 핵심 전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두바이와 아부다비 일부 기관에서는 필기시험에 더해 실기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이론과 실제 능력 사이의

## 2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방사선사 교육과정 비교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방사선사 교육 및 제도를 비교해 보면, 두 나라가 지향하는 의료 인력 양성 철학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는 학사 중심의 실무 지향적 단일 구조를 택했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학위 경로와 대학원 체계를 통해 다층적 전문성을 확장해 왔다. 아랍에미리트의 대학 학제는 기본적으로 4년제 학사(Bachelor's degree)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방사선사 양성 역시 4년제 Bachelor of Science(B.Sc.) 과정이 표준 경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육은 종합대학 내 학부 체계에서 이루어진다. 일부 대학에서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그 수와 전공 범위는 제한적이다. 예컨대 University of Sharjah 등 일부 기관에서 MRI, CT, 초음파 등 특정 영상 분야 중심의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구조는 임상 실무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박사과정 역시 연구·교육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한국의 방사선사 교육 체계는 3년제 전문학과와 4년제 학사 과정이 병존하는 이원화 구조를 보인다. 전문대학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이른바 ‘2+2’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학위 경로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석사 및 박사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임상 전문성뿐 아니라 연구 및 교육 인력 양성까지 포괄하는 학문적 발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직업 교육을 넘어 학문 분야로서의 방사선학을 강화해 온 한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술 및 전문교육의 방향성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교육은 첨단 의료기술 중심의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국제병원과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가의 최신 영상 장비를 활용한 실습이 강조되며, 글로벌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 실무 역량 확보가 핵심 목표다. 특히 광범위한 사막 지형과 분산된 의료 인

간극을 최소화하려 한다. 의료 현장은 교과서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무 중심 평가는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다. 추가 요건 역시 엄격하다. 영어 능력은 필수이며, 다문화 사회의 특성상 아랍어 구사 능력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신규 졸업생은 구조화된 임상 실습이나 인턴십 이수 증명이 요구되며, 해외 경력자는 자국의 유효 면허와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장치다.

모든 검증을 통과하면 면허가 발급되지만, 그것이 곧바로 근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랍에미리트 내 의료기관의 채용과 취업 비자 스폰서십을 확보해야만 합법적 근무가 가능하다. 즉, 면허는 ‘전문성의 인증’이고, 취업은 ‘시장 경쟁의 결과’인 셈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면허 갱신 제도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일반적으로 1~2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 전문성 개발 점수(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학술대회 참석, 공인 교육 과정 이수, 연구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정 점수를 충족해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의료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제적 기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치로, 전문직을 ‘평생 학습자’로 규정하는 제도적 철학을 담고 있다.

종합하면, 아랍에미리트의 방사선사 면허 제도는 진입 단계에서의 엄격한 검증과, 면허 취득 이후의 지속적 역량 관리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 포괄적 시스템이다. 전문성은 한 번의 시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검증과 학습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글로벌 의료 허브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전문 인력의 질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랍에미리트의 사례는 면허 제도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 의료 신뢰도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국제적 인력 이동이 일상화된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프라라는 지역적 특성은 원격의료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Teleradiology(원격 영상 판독 및 전송)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에 따라 영상 데이터 전송, 보안 관리, 디지털 협진 역량에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또한 국제적 의료 인증 체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교육 요소다. 예컨대 세계적인 국제 인증 기관인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인증을 획득한 병원을 중심으로 한 임상 교육은 환자 안전, 영상 품질 관리, 국제 표준 프로토콜 준수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글로벌 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맞닿아 있다.

한국의 기술 교육은 상대적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취한다. 일반 방사선 촬영을 기반으로 시작해 CT, MRI 등 고급 영상 기술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구조는 학습자의 이해도와 임상 적응력을 고려한 모델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대도시 밀집된 환경은 다수의 환자와 다양한 증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실무 역량 강화에 중요한 자산이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특화된 검사 적정성, 보험 급여 기준, 의료 자원 활용에 대한 교육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임상 실습 체계 역시 각 국가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다국적 의료 인력이 근무하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며, 환자의 상당수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다. 이 환경에서 방사선사는 단순한 영상 전문가를 넘어 문화적 중재자(cultural medi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대학병원, 지역 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층적 실습이 이루어지며, 의료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구조를 갖는다.

사회제도적 차이는 직무 범위와 전문화 경로에서도 드러난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방사선사의 역할과 책임이 국제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외국인 인력이 전체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다국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전문화는 MRI, CT, 중재적 방사선

학 등 세부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기관의 국제 인증을 추가 취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글로벌 인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한국은 대부분 국내 교육과 면허 체계를 기반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 집단의 동질성이 높은 편이다. 방사선사는 의사의 의뢰와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화 역시 학회와 제도적 자격 체계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안정성과 제도적 일관성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아랍에미리트는 다국적 인력과 국제 인증을 축으로 한 글로벌 지향적 전문화 모델을, 한국은 국가 의료보험 체계와 학문적 축적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체계적 모델을 구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의료 인력 양성은 각 국가의 사회 구조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이다. 국경을 넘어 의료 인력이 이동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자국 중심의 시각을 넘어 서로의 제도에서 배울 점을 모색해야 한다. 방사선사 교육과 제도의 비교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1) 교육과정 구성

아랍에미리트의 방사선사 교육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체계적 이론과 현장 실무를 균형 있게 결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의료영상 분야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과학적 판단과 고도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전체 교육과정의 약 60%는 이론 교육에 할애된다. 해부학과 생리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과학, 병리학, 방사선물리학, 방사선생물학 등은 방사선사가 영상의 '결과'를 넘어서 그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토대다. 여기에 일반 방사선 촬영, 투시 검사, CT, MRI, 초음파, 핵의학, 방사선치료 등 의료영상 전반을 아우르는 전공 이론이 더해진다. 특정 장비 운용 능력에 국

한되지 않고, 영상의학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폭넓은 이해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방사선 안전 교육은 아랍에미리트 교육과정의 핵심 축이다. 국제 기준에 해당하는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ICRP)의 권고와 아랍에미리트 국가 방사선 안전 규정을 토대로, 환자와 의료종사자 모두의 방호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다. 이는 의료 기술의 발전이 곧 위험 관리의 정교함을 요구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영상의 질 향상만큼이나 안전성 확보가 전문성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다. 전체 교육과정의 약 40%를 차지하는 임상 실습은 이론을 현실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아랍에미리트는 학기 중 통합형 실습과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블록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지속적 노출과 심화 경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실습은 Sheikh Khalifa Medical City, Cleveland Clinic Abu Dhabi, Dubai Hospital, Al Qassimi Hospital 등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기관은 최신 영상 장비와 국제 표준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첨단 의료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교육 구조는 아랍에미리트가 지향하는 의료 인력상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즉, 과학적 기반 위에 실무 능력을 갖추고, 국제 기준의 안전 의식을 내면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론 60%, 실습 40%라는 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원리와 현장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방사선사 교육은 '장비를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 '영상의학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첨단 장비와 국제 기준을 갖춘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은, 그들이 글로벌 의료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있다.

### (2) 인증 및 평가 체계

아랍에미리트의 방사선사 교육은 단순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위 과정이 아니다. 국가의 감독과 국제적 기준 속에서 다층적으로 검증되는 공적 시스템이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MOHAP)이 제시하는 보건의료 전문직 교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방사선사 양성이 학문적 영역을 넘어 국가 보건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다. 더 나아가 일부 대학은 국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함으로써 교육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Australian Institute of Radiography(AIR)나 Society of Radiographers와 같은 해외 전문기관의 인증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교육 내용과 임상 역량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수단이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자국 의료 인력을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 가능한 전문가로 육성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 평가 방식 역시 이러한 철학을 반영한다. 평가가 단일 필기시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론 시험은 기본이지만, 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 역량을 검증한다. 여기에 학습 과정 전반을 기록 분석하는 포트폴리오 평가, 그리고 실제 임상 실습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더해진다. 즉, '아는가를 넘어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구조다. 이 같은 다면적 평가 체계는 방사선사를 단순 기술 인력이 아닌, 책임 있는 의료 전문직으로 규정하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의료영상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정보이며, 그 과정에는 윤리적 판단과 안전 의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평가 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 아랍에미리트의 방사선사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인증과 국제 인

증, 그리고 다각적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질 관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의료 인력의 전문성이 우연에 맡겨질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국제적 의료 허브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교육의 엄격함은 곧 의료의 신뢰로 이어진다. 아랍에미리트의 사례는 전문직 교육이 어디까지 공적 책임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 (3) 중동 타국과의 학제 비교

아랍에미리트의 방사선사 교육체계는 중동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모델로 평가된다. 다양한 국적의 교수진과 학생, 영어 기반 교육, 국제 인증 연계 프로그램 등은 아랍에미리트가 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 경쟁력의 일환으로 전략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중동 전체의 보편적 모습이라기보다는,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는 4년제 학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사선사를 양성하지만, 교육 운영 방식에서는 자국의 사회적 전통이 뚜렷하게 반영된다. 남녀 분리 교육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문직 자격과 교육의 질 관리는 Saudi Commission for Health Specialties (SCFHS)의 인증을 통해 엄격히 통제된다. 이는 종교적·문화적 가치와 국가 중심의 면허 관리 체계가 결합된 구조라 할 수 있다.

카타르는 또 다른 길을 택했다. 북미식 교육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University of Calgary in Qatar를 통해 캐나다식 방사선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는 자국 내 교육 인프라를 단기간에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해외 명문 대학의 커리큘럼과 학사 운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접근이다. 한편 오만은 Sultan Qaboos University를 중심으로 4년제 방사선사 교육을 운영하며, Oman Medical Specialty Board의 인증 체계를 통해 전

문성을 관리한다. 비교적 국가 주도형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으로 국제 기준을 반영하려는 절충적 모델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중동 각국은 동일하게 4년제 학사 중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교육 운영 방식과 국제화 전략, 규제 구조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아랍에미리트는 개방성과 다국적 인력 활용을 기반으로 한 국제화 모델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과 국가 통제를 중시하는 관리형 모델을, 카타르는 해외 명문대 연계를 통한 수입형 모델을, 오만은 자국 중심의 점진적 발전 모델을 선택한 셈이다.

방사선사 교육체계는 단순한 학위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가 의료 전문직을 어떻게 정의하고 통제하며 발전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중동 지역의 다양한 사례는, 국제화라는 공통 목표 속에서도 각국의 역사와 문화, 국가 전략에 따라 그 해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랍에미리트의 개방적 모델은 이러한 스펙트럼 속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 3 중동 국가 방사선사 교육과정에 통합된 아랍 문화적 요소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지역의 방사선사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기술적 전문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교육의 구조 속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 방사선사 양성은 단순한 영상 장비 운용 능력의 습득이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 의료 환경에 적합한 전문직 윤리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교육과정에는 이슬람 윤리, 성별 분리 원칙에 따른 의료



행위 프로토콜, 아랍어 의학 용어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는 배경 지식 차원의 교양 과목이 아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준비 과정이다. 예컨대 여성 방사선사가 남성 환자를 검사할 경우 적용해야 할 상호작용 지침, 제3자 동반자(chaperone) 배치 원칙, 여성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절차 등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의 대상이 된다. 히잡을 착용한 환자의 검사 방식, 동성 방사선사 배정의 우선 원칙, 최소한의 신체 노출을 유지하는 촬영 기술 등은 모두 문화적 존중과 의료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종교적 요소 역시 의료 실무 전반에 통합되어 있다. 기도 시간 준수, 라마단 기간 중 환자 관리, 신체 순결(Taharah) 개념에 대한 이해는 실제 임상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진다. 검사 일정 조정, 검사실 내 기도 공간 배려, 조영제 사용과 종교적 규범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전문직 판단의 일부로 교육된다. 돼지 유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나 알코올 성분 소독제 사용에 대한 종교적 금기를 이해하고, 가능한 대체 방안을 숙지

하는 것 또한 필수 역량으로 간주된다.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다. 중동 사회는 개인보다 가족 중심의 집단적 의사결정 모델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방사선사 교육과정에서는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합의 형성 과정, 문화적 설득 전략 등이 강조된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경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함으로써 의료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접근이다.

복장 규정 또한 전문직 윤리의 일부로 교육된다. 병원 실습 환경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복장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공동체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해석된다. 이처럼 걸프 지역의 방사선사 교육은 문화적 가치와 임상 실무를 분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둘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전문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방사선사 교육은 상대적으로 종교 중립적이며 개인 중심적 의료

윤리를 기반으로 한다.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핵심 가치로 설정되어 있으며,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 절차와 권리 보호가 교육의 중심을 이룬다. 의사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제도적·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결과다. 이 비교는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르다는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사선사 교육이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각 사회의 문화적·윤리적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 종교적 관행을 임상 실무와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은 개인의 권리와 제도적 절차를 중심으로 전문직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방사선사 역량은 단순한 기술 숙련도를 넘어,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중동과 한국의 사례는, 전문직 교육이 문화와 윤리를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 4 아랍에미리트 방사선사 면허시험 합격 기준

아랍에미리트에서 방사선사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가 전문직의 질을 보증하는 공적 장치로 기능한다. 면허 관리는 연방 차원의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MOHAP)을 중심으로, 두바이의 Dubai Health Authority(DHA), 아부다비의 Department of Health - Abu Dhabi(DOH) 등 각 토후국 보건 당국이 함께 담당하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다. 중앙의 기준과 지역의 실행력이 결합된 체계라 할 수 있다.

시험 구조는 대체로 100~150문항의 객관식(MCQ) 문제로 구성되며, 합격 기준은 일반적으로 60% 이상, 일부 시험이나 당국에서는 70% 이상을 요구한다. 단순한 지식

확인을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기준이다. 시험 범위는 방사선 물리학과 장비 운용, 방사선 생물학 및 방호, 해부학과 생리학, 영상의학 기술, 환자 간호와 안전, 영상 판독의 기초 지식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적 특성, 의료 윤리, 지역 보건 규정에 대한 이해 역시 일부 평가 대상이 된다. 이는 전문성이 기술적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면허 취득 과정 또한 다단계 검증을 거친다. 공인 학사 학위 취득은 기본 전제이며, 학위와 경력에 대한 서류 인증, 필요 시 선행 평가, 임상 시험 또는 면접까지 포함된다.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최종 서류 검토와 면허료 납부 절차를 거쳐야만 공식 면허가 발급된다. 즉, 단일 시험 통과만으로 전문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구조다. 특히 주목할 점은 면허가 1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발성 자격 부여가 아니라, 지속적 관리와 감독의 개념에 가깝다. 매년 갱신 절차를 통해 현지 규정 준수 여부와 임상 능력 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전문직의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아랍에미리트의 방사선사 면허 제도는 '진입의 엄격함'과 '유지의 지속성'이라는 두 축 위에서 서 있다. 이는 의료 인력의 국제 이동이 활발한 환경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전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면허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담보하는 사회적 계약임을 아랍에미리트의 제도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III. 결론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수년간 첨단 의료 인프라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대형 병원 설립과 최신 영상 장비 도입은 이미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방사선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또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이제 단순한 장비 운용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디지털 영상 데이터 관리, 원격 협진 시스템 운용에 능통한 인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의료영상 분야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가장 밀접하게 결합되는 영역 중 하나다.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 자동 병변 탐지 알고리즘, 대규모 데이터 기반 진단 지원 기술은 이미 임상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러한 흐름을 적극 수용하며, 디지털 헬스 역량을 갖춘 방사선사를 미래 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의료 허브를 지향하는 국가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제도적 방향성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 출발점이 다르다. 아랍에미리트는 다국적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 중심의 의료 체계를 구축해 왔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환자와 의료 인력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표준화와 국제 인증은 곧 신뢰의 언어가 된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단일 민족 국가의 공공의료 체계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과 제도적 통합성이 핵심 가치로 작동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방사선사 제도와 교육 체계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아랍에미리트는 국제 이동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염두에 둔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국가 의료 시스템 안에서의 안정적 역할 수행과 제도적 정합성을 중시한다. 즉, 하나는 '세계 시장'을, 다른 하나는 '국가 체계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발전해 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공통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 통합,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 확대라는 흐름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의료영상 분야에서의 자동화와 고도화는 방사선사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기술 이해도와 데이터 활용 능력은 이제 필수 역량이 되었다. 다만 문화적·제도적 토대의 차이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료는 기술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각기 다른 역사와 사회 구조 위에서 의료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디지털 혁신이라는 공통의 물결 속에서도, 그 물결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변화의 흐름을 읽는 일이다. 첨단 기술이 의료 현장을 재편하는 시대에, 방사선사의 전문성 역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되는 개념이 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사례는, 의료 인력 양성이 어떻게 국가 정책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2026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도관리 측정 사업

대한방사선사협회 안전관리부



### 사업 소개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장치 성능 및 누설선량 측정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검사장비 : 일반촬영 장비, 투시장비(고정형), C-arm(이동형), 이동형 X-선 촬영장치 (Portable X-ray)

**대상**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 제8조(의무)를 다한 회원

**지역**  
전국 중소 병·의원

**비용** FREE  
대상 회원에 한해 무료 진행

**소요 시간**  
약 1시간 ~ 1시간 30분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링크 접속

### 법적 근거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정기검사 의무 최초 검사 후 3년마다 실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본 측정사업은 방사선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무면허 방사선 검사 퇴치 운동!



**시행시기**  
2026. 1 ~ 2026. 12

**핵심목표**  
병·의원에서 무면허 검사 근절과 방사선사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주요 불법 사례

**01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검사**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간호사의 방사선 검사 시행**

간호사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03 무자격자의 의료 현장 침탈**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자가 방사선 기기를 조작하거나 검사하는 행위.

### 처리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무면허자 신고

- 신고접수 : 협회 홈페이지 - 커뮤니티 - 무면허자 신고 접수
- 협회 홈페이지 무면허자 신고 접수 신고 받은 병·의원에 사실관계 확인 공문 및 조치 결과서 발송
- 조치 결과서 회신이 없을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부서에 유선 연락 및 협조공문 발송
- 최종 결과를 신고한 회원에게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무면허 신고 인정되면 포상금(모바일 상품권 등) 지급 - **20만원**
- 직접적인 증거 (무면허 행위자가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확보하여 신고 시 위반자와 위반행위 확인 후 공익신고로 진행(행정사 협업)
- 공익신고가 진행되어 무면허 위반행위 인정되면 포상금(모바일 상품권 등) 지급 - **100만원**



무면허자 신고 접수 바로가기



**환자 안전 최우선!** | **정당한 권익 보호!** | **전문성 존중!** | **일자리 보호!**

불법행위 근절로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방사선사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불법행위 근절, 우리의 책임! 여러분의 신고가 **건강한 의료문화**를 만듭니다!



국민의 건강과 희망을 비추는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사명

# 제4회 방사선사의 날

61<sup>ST</sup> ANNIVERSARY  
창립 61주년 기념  
1965-2026

61년의 믿음 위에서 안전한 생명의 빛을 밝힙니다.  
건강한 내일을 약속하는 사람들, 우리는 방사선사입니다.

<b>일시</b> 2026. 07. 25.(토) 11:00	<b>장소</b> 대한방사선사협회관	<b>주요내용</b> 기념식, 유공자 표창, 비전선포식 등
-------------------------------------	------------------------	-------------------------------------



# 퀴즈 이벤트

## 방사협보 제406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퀴즈 응모 하러가기

**응모기간** 2026년 6월 29일(월) ~ 7월 31일(금)  
**참여 대상** 연회비 완납 방사선사 회원(\* 과년도 회비 완납자)  
**당첨자 안내**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 예정되며, 2026년 8월 14일(금) 이후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등 골드바 (2명)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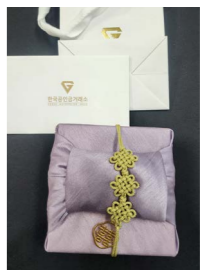
**Quiz 1**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은 몇 개 분야로 진행될까요?

**Quiz 2** 「의료기사법」 개정안에서 의사의 '지도'를 '지도 또는 0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Quiz 3** 제61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일은 언제일까요?

## 방사협보 제405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규입니다. 항상 협회와 협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방사선사로서 이렇게 큰 행운이 제게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저보다 먼저 알고 지인들의 축하전화를 받으며 협회와 홈페이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느끼기도 했습니다. 항상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발전과 따뜻한 상담과 예쁜 협보까지 만들어 주시는 사무국 직원분들, 현장에서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시는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박\*규 회원



안녕하세요, 방사협보 퀴즈 이벤트가 있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큰 기대 없이 응모하였습니다. 매번 이런 기회가 있어도 당첨과는 많이 멀었거든요. 알려진 동료 대신 제가 받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얼떨떨합니다. 당첨에 지분(?)이 있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합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협회장님과 관련된 운영진께 감사드리고,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형 회원



# 제61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THE 61ST CONGRESS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  
INTERNATIONAL CONFERENCE

2026. 10.31(토)  
인천 송도 컨벤시아

주최·주관



사단  
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후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